

우리문화

The Feder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 vol.241

겨울호 2013





어르신 공예품 특별전

2013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 경인미술관에서 열린 '어르신 공예품 특별전'

우리문화

등록번호 서울라12184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소 우1121-7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9(도화동, 성우빌딩) 12층

홈페이지 www.kcaf.or.kr 전화 02)704-2311~3

팩스 02)704-2377 발행·편집인 오용원 편집위원 한춘섭, 곽효현, 나도은, 이기만

기획·디자인·편집·인쇄 (주)컬처플러스 02)2264-9028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임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Contents

冬 겨울호 2013
vol.241

The Feder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

지금 문화원은?

문화원 빅뉴스

02

테마특집

테마기획	21세기 어르신 올드에이지 아닌 골든에이지	04
우리문화가 만난 사람	악귀 물리치는 장승, 풍농 기원하는 솟대처럼	10
2013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전국 193개 지방문화원, 342개 프로그램	13

이야기가 있는 문화

문화원형	아리랑의 비밀	18
명품 지역문화	삶과情이 깃든 우리네 웰빙 떡	22
지역스토리 PR	지방문화원 SNS홍보 성공하려면	26
포토에세이	산천어 어디 숨었나	30
冬冬여행	발 冬冬 구르는 한겨울 온천여행	32
향토문화	전국 향토문화공모전 대상 수상작	36

기획연재

해외사례 연구③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도시 암스테르담	40
지역문화 아카데미③	자연을 품은 한옥!	44

정보마당

한국문화원연합회 이모저모	훈장 받은 문화원장들	48
대한민국 문화원상	'2013 대한민국 문화원상' 시상	50
국회 시 낭송의 밤	국회에서 시를 만나다	52
지방문화원 이모저모	지방문화원 신입원장&행사소식	53
문화칼럼	축제의 한류열풍을 기대하며	56



2013 문화원의 날 성료

대한민국문화원상 대상에 목포문화원

향토문화공모전 대상에는 권유현 前 산청 덕산초등학교장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13 문화원의 날 기념식'이 10월 10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청주시 라마다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해 전국의 지방문화원장 등 문화원 가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은 문화비전 선언문 낭독에 이어 대한민국문화원상 시상식, 제28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 2부 순서로 댄스 공연

과 노래자랑 등 흥겨운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전국 문화원 가족들은 문화비전 선언문 낭독을 통해, 창조적 문화의 산실인 지역의 문화가 체계적으로 보존되어 미래세대에 잘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문화원을 널리 알리고 표상으로 삼기 위해 수여하는 대한민국문화원상의 올해 수상 문화원에 대한 이흥재 추계예술대 교수의 심사평이 있었다. 올해 대한민국문화원상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목포문화원에게 돌아갔다. 동작문화원, 정선문화원,

예산문화원, 창원문화원 등 4개 문화원은 우수상을 받았다. 또 향토문화의 발전과 향토사가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제28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대상'(국무총리상)은 권유현 前 산청 덕산초등학교 교장이 영예를 안았다. 조현재 문체부 제1차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자신의 경험담을 피력하며 문화융성의 시대를 맞아 지방문화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하고, 이 시대의 비전인 '문화융성, 행복한 대한민국'을 창출하기 위해 지방문화원이 앞장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민국문화원상

구분	수상단체(개인)
종합 경영 부문	대상
	목포문화원
	우수상
	동작문화원
	정선문화원
프로 그랜 부문	축세 및 문화행사
	목호등대미술포럼
	담길(동해문화원)
인재부문	
외부협력부문	
지역 문화 창달 부문	양양문화원
	향토사 발굴 및 조사연구
	원주문화원
	제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회
	고유문화개발 및 보급
	함수호
	거창문화원
지역 문화 창달 부문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산청문화원
	박영근
지역 문화 창달 부문	문화예술
	지영희
지역 문화 창달 부문	국내외 교류
	김천문화원

전국향토문화공모전

부문	시상	성명	소속	작품명
부문 없음	대상 (국무총리상)	권유현	前 산청 덕산초등학교장	石刻 銘文으로 남은 山陰地域의 尤庵과 後孫의 手迹
논문 부문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윤여정	나주시청 행정사무관	호남가의 제형태와 변화연구
	우수상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중앙 사학愛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고등학생의 향토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2007년과 2013년도 강릉지역 고등학생의 의식변화 비교-
	특별상 (국사편찬위원회장상)	김정석	안양문화원 향토문화연구위원	安養 '三聖山'의 文化的 考察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황의호	대전여자 고등학교장	보령 주산면 증산리 李世龜 후손의 甲戌(1694) 同腹和 會文記 연구
자료 부문	우수상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장길수	前 봉황중학교장	주제별로 살펴본 공주의 땅 이름 이야기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황장섭	한국스토리텔링 작가협회 대구지부장	자청비와 테우리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전병진	프리랜서	천무-오광대
	우수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전병진	프리랜서	천무-오광대

▶관련기사 36~39p, 50~51p

2013 문화의 달 기념 문화예술 유공자 포상

지난 10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 봉래동 문화역서울284에서 개최한 2013 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지방문화원장 등 3명이 문화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훈장을 받은 문화계 인사들은 모두 18명이다.

이만구 포천문화원장과 고창식 평창문화원장은 옥관 문화훈장을 나란히 수훈했으며 시인이자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 전 광주문화원연합회장은 화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이만구 원장은 10년 가까이 문화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3개 과정의 문화학교를 운영, 포천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훈장을 받았다.

고창식 원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접목된 토속음식을 발굴하는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대중화하고 세계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인이자 화가인 김종 전 광주문화원연합회장은 문화도시 광주의 문화예술 발전에 힘쓰면서도 10권의 시집발간과 14회의 미술전시회 등 왕성한 작품 활동도 보여줘 훈장을 받았다.

한편 이복용 전 군산문화원장은 이날 올해로 45회째를 맞는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문화 부문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돼 상장과 부상 1,000만원을 받았다.

▶관련기사 48~49p

2013 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문화훈장을 수훈한 문화원장들이 환하게 웃으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에서부터 오용원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이만구 포천문화원장,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광주문화원연합회장, 고창식 평창문화원장.



문화브랜드 '어르신(信)'을 아시나요?

11월 27일 서울 경인미술관에서
어르신 공예품 특별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 및 지방문화원이 주최한 '어르신(信) 공예품 특별전'이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개최됐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어르신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진도문화원의 짚·풀 공예, 과천문화원의 사랑매듭 나누미, 청원문화원의 갯바치 등 18개 문화원 156종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날 전시된 작품은 관람객이 직접 구매할 수도 있어 어르신이 만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 관람객의 만족도도 높았다.

오용원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어르신 공예품은 어르신 세대의 여가 기회와 사회 참여 활동을 확대하는 동시에 어르신에 대한 고용창출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어르신' 브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르신 제품들

◀진도문화원 소속 어르신이 짚풀공예품 제작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21세기 어르신 올드에이지 아닌 골든에이지

문화예술 배우고 소외계층과 나누고 전통생활문화 전한다

“차예절을 배우다보면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조청과 상엿소리를 팝니다”

“이제 쓸모없다고 생각하던 모시꽃 만들기로 돈을 벌 생각하니 가슴이 뛰어요”

실버세대들이 문화를 통해 인생2막을 설계하고 있다. ‘뒷방 늙은이’에서 ‘젊은 오빠’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지역문화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진도민속문화예술단의 공연 모습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성공 키워드 ⑧

- ①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 ② 지방문화원 고유의 창의적 콘텐츠 발굴
- ③ 우수한 강사진 확보
- ④ 재능기부·나눔교육·창업 등 활동 지원
- ⑤ 아마추어 문화예술인 및 강사로 배출
- ⑥ 실버세대와 예비 실버와의 화합력 증진
- ⑦ 고용창출·수익사업 모델 개발
- ⑧ 배움에서 나눔으로



문화브랜드 ‘어르신(信)’ 공예품



성남문화원의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해설사 양성 과정'



청주문화원의 '할머니와 함께하는 어린이 차예절교실'

193개 문화원에서 342개 맞춤형 어르신사업 이뤄져

우리나라는 지구촌 역사상 최단 시간 내에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은 지난 2005년 부터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배움터인 어르신문화학교, ▲전문강사를 직접 파견하는 찾아가는 문화학교, ▲이수자 강사를 직접 파견하는 찾아가는 문화학교, ▲배운 것을 나누는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어르신들이 간직해온 생활문화를 전하는 생활문화전승프로그램, ▲어르신들의 주제적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어르신 문화 동아리 활성화 사업 등 193개의 문화원에서 342개의 다양한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청주문화원의 '할머니와 함께하는 어린이 차예절교실', 상 옛소리를 테마로 한 사회적기업 '진도민속문화예술단', 고성문화원 '모시꽃 만들기'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밖에 도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동대문문화원의 '왕언니 클럽의 행복콘서트(노래, 춤)'를 비롯 안양 문화원의 '두드려라! 그러면 통할 것이다(난타)', 의정부문화원의 '골든패밀리' 출동! 1,2,3,4세대 '한마음밴드(밴드)', 익산문화원의 '판 열 Go, 두드리Go(풍물)', 거창문화원의 '과거길 따라 한양가세(길 조성, 전통문화체험)', 서귀포문화원의 '어르신 문화로 가꾸는 이야기마을(민속혼례)' 등 다양하다.

웃음강사, 문화해설사 등 다양...마을기업으로 성장하기도

이런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노인을 올드가 아닌 골드로 전환하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성남문화원은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해설사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주장사, 보조강사로 나뉘어 학교, 주민센터, 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에 방문해 문화해설사로 강의하고 있다.

유성문화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어르신문화프로그램으로 운영했던 내용을 재기획해 올해 '달려라 실버포장마차'를 운영했다.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을 가장 잘 아는 세대라는 점에 착안해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손맛'의 가치를 '한식 문화 홍보'와 연계했다. 최종 목표는 어르신들이 전통음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로 성장하도록 기반을 닦는 것이다.

진도문화원도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마을기업으로 잘 발전시킨 성공사례로 꼽힌다. 진도문화원은 2010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생활문화전승사업으로 해창마을에서 '뱃놀이 체험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작했다. 이 마을은 과거 어촌 지역이었다가 간척에 의해 농촌으로 바뀐 마을로 이 곳에서 뱃놀이 체험, 마을박물관 등을 운영했다.

2011년 해창마을은 '도시·농촌간 교류 촉진법'에 의해 체험마을로 지정되면서 기존에 하던 뱃놀이 사업 뿐 아니라 콩심

기 부터 장 담그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체험과정으로 만들어 도시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전통장류 담그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2012년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초 전라남도로부터 마을기업에 선정됐다. 이에 힘입어 기존 사업에 지역의 향토음식을 제조, 판매하는 '시골밥상 제조 판매'가 추가됐다. 현재 '해창마을'은 지역의 상황과 자원을 사업과 연계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문화원이 결합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이 마을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있는데 장동마을이 대표적이다. 대전대덕문화원이 운영하는 2008년 어르신 문화학교 사업이 씨앗이 되어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으로 발전한 사례다. 지역 고유자원과 주변 환경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통해 수익을 올리며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어르신들 '수혜자'에서 '주체자'로 자리바꿈

그런데 이들 어르신사업에서 눈길을 끄는 변화의 대목은 어르신 세대가 문화복지를 제공받는 '수혜'에서 '주체'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어르신 세대에게 여가 기회와 사회 참여를 통한 행복한 인생2막을 제공하는 게 어르신사업의 1차적 목표이지만 동시에 이런 혜택을 받은 어르신들이 문화공연, 특강, 재능기부 등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비롯 소외계층과 젊은 세대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주체적 존재로 자리바꿈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사회적 의미가 크다.

그렇다면 우리 미래사회에 노인과 국가발전간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될까. '노인이 가진 지식은 도서관의 책보다 많다'는 영국 속담이 있다. 바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 공동체 문화가 어떤 현대 지식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국사회를 통합하고 국가경쟁력을 갖는데 있어서 어르신들은 장애가 아니라 교두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르신들을 문화 리더로 육성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문화창조자로 역할할 수 있도록 지원 뒤따라야

그렇다면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이 지향할 것은 무엇일까. 우선 어르신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콘텐츠를 선정하는 것이



2013년 11월 17일 서울 인사동에서 열린 문화브랜드 어르신(信) 공예품 특별전 전시·판매 제품들

중요하다. 텔레비전, 인터넷에서 충분히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어디서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은 소용이 없다. 어르신들의 수용성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독특한'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또한 어르신들이 배운 내용이 사회에서 가치 있게 쓰이거나 이웃, 소외계층 등에 재능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을 한 명의 전문가로 성장시키는데 만족할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문화창조자로 역할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1월 27일 서울 인사동에서 열린 '문화브랜드 어르신(信) 공예품 특별전'은 고용 창출과 수익사업을 점치는 자리였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통합을 이루는데 힘써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예비 어르신인 50대부터 기성 어르신인 80대까지 화목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이들 어르신들이 사회의 주변인이 아닌 각 분야의 주인공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2막은 우리사회가 소통과 통합을 이루는 2막이 가능한지를 점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

글 오현지 · 김미하

사진 청주문화원, 성남문화원



진도문화원의 옛타령 장면

청주문화원

할머니와 함께하는 어린이 차예절교실 茶배우니 즐겁고 다함께 나누니 기쁨

지난 10월 22일 보은 속리산 잔디공원에서는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충북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문화와 노니는 어르신 건강하고 행복한 청춘' 권역별 어르신문화축제가 열렸다. 충청북도 청주문화원의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인 '할머니와 함께하는 어린이 차예절교실' (이하 차예절교실) 수강생들은 티아트(Tea-art)와 들차회 자리를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수강생들의 문화나눔과 재능기부에 대한 관심이 빛은 결과였다.



1

호응 높아

초등 6학년생 까지 확대

청주문화원은 어르신문화프로그램으로 매주 화요일 3시간 동안 차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예비 실버를 포함해 50~70대 어르신으로 구성됐다. 수업이 끝나도 대부분 남아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교육 활동을 위해 학습지도안 준비, 행다례 연습 등을 한다.

수강생들의 애정이 각별한 이유는 두 가지다. 배움의 즐거움, 나눔의 기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예절교실 과정 중 문화나눔

- 1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수강생들
- 2 차예절을 배우고 있는 수강생들



2

활동은 수강생들의 성격과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 마음이 편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차를 대접하는 과정에서 베품의 행복을 느껴 더 문화나눔에 매진하는 것이다.

어르신들은 지난 10월부터 매주 1회 한벌초교를 찾아가 5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할머니와 함께하는 차예절놀이'라는 테마로 전통예절과 우리문화를 다양한 체험으로 즐기는 신바람 예절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호응이 높아 5학년에 이어 6학년까지 차예절교육을 받고 있다.

어르신들의 문화나눔활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부터 매주 화요일 강좌가 끝난 오후 현장실습을 겸해 흥덕구청어린이집과 자연어린이집, 화암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다례교실'을 운영했다. 문화나눔 봉사활동은 매주 1회씩 4주간의 과정으로 어린이들에게 전통예절, 생활차예절, 다과만들기와 교육생 발표회 등을 체계적으로 집중 교육함으로써 올바른 정서함양 및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벌초 5학년생인 김서현양은 "할머니들이 직접 찾아와서 가르쳐주는 차마시는 예절이 생각보다 재미있고 흥미가 있었다"며 "전통문화라고 하면 좀 지루할 것 같았는데 기회가 있으면 다시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청주문화원은 수강생들로 구성된 동호회를 만들었는가 하면 각종 문화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전통차 시음회를 열어 차예절을 가르치는 등 외부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권영애 사무국장은 "문화원 관계자들과 차예절교실 자료를 공유하고 싶다. 서로 벤치마킹하며 경쟁하면 전국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

진도민속문화예술단

상여소리와 옛타령을 창업아이템으로 전통의 맥 이으며 '어르신 기업'으로 성장

전국의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독립적이며 주체적인 어르신의 문화활동'이다. 이는 지역 사회에 문화나눔을 실현하면서 수입을 창출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형태를 말한다.

진도민속문화예술단(이하 문화예술단)의 첫 시작은 진도문화원의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이었다. 조오환 문화예술단 이사장 겸 진도문화원 부원장은 제40호 도지정 조도땃배노래 예능보유자로 우리 소리에 정통하다. 조 이사장이 상여소리와 옛타령을 가르쳤던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이 올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했다.

조청 만들어 팔며 사회적기업 토대 마련

처음 조 이사장이 어르신문화프로그램으로 상여소리와 옛타령을 가르쳤을 때 이웃에게 향의를 받았다. 좋은 노래가 아니라는 편견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순간에 극복됐다. 서민의 역사가 담긴 우리 소리를 배울 수 있다라는 매력과 차별성 때문에 어르신들이 몰린 것이다. 더 나아가 독특한 우리 소리를 뛰어난 실력으로 소화하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공연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조 이사장을 주축으로 문화예술단이 꾸려지는 첫 단계였다.

문화예술단은 공연 참여로 바쁜 나날을 보내며 작은 변화를

- 1 조오환 이사장이 미국 콜럼버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진도민속강의(땃배노래) 초청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2 진도민속문화예술단의 공연모습



경험했다. 예전 공식 명칭은 실버예술단이었는데 주변에서 “우리 소리를 부르니 ‘실버’를 빼면 어떻겠냐”고 건의했다. 조 이사장은 문화예술단 공식 명칭을 ‘진도민속문화예술단’으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연비로는 문화예술단 단원들의 차비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라서 공연하고자 하는 어르신의 문화적 욕구는 매우 높았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사회적기업 설립’이 돌파구였다. 사회적기업 틀을 세우기 위해 수입과 지출 장부를 꼼꼼히 작성하고 직원을 고용해 민속예술단을 운영했다. 또한 수입을 올리기 위해 초청을 만들어 판매했다. 행사 공연 요청이 들어오면 “부스 하나를 달라”고 요구했다. 민속예술단 공연에 관심을 보이는 관객이 부스를 방문하면 초청을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초청 수입금은 민속예술단 예산으로 쓰였다.

이러한 노력이 올해 결실을 보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문화예술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다. 수많은 단체가 매년 도전해도 실패한 어려운 과제를 단숨에 해결한 것이다. 조 이사장은 “실버 세대에게 전해야 할 문화는 따로 있다. 실버 세대 관객이 진정으로 즐기고 동참할 문화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한날 눈요기보다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국의 문화원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



고성문화원

고성문화원 '모시꽃 만들기' 1석 3조 건강 챙기고 소양 쌓고 수입 올리고

경상남도 고성군은 고령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지역 중 하나다. 거주 주민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 여타 도시에서 느끼는 활력이 없다. 경제적 활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낮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이 많은 편. 고성문화원은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문화프로그램으로 '모시꽃 만들기'를 선택했다. 지난 5월 말 시작해 10월 초에 끝난 모시꽃 만들기는 1주일에 한 번 세 시간 강의로 이뤄졌다. 모시꽃수공예의 영남지역 초대사범이라 불리는 김숙선 부원장의 강의는 꽃씨 만들기, 꽃잎 재단하기 등 기초과정을 거쳐 진달래, 목련, 카네이션 등을 만드는 순서로 진행됐다.

소득 활동과 연결된 교육내용에 만족도 높아

김숙선 부원장의 직강으로 진행한 모시꽃 만들기는 모집 당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모시꽃 만들기는 아무 곳에서도 쉽게 배울 수 없는 희소성이 높은 문화 활동이란 점에서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매해 반복되는 흔한 교양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새로운 배움을 원하는 어르신의 지적 호기심을

- 1 윤치있는 주택에 잘 어울리는 수강생들의 작품
- 2 모시꽃 만들기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



충족시킨 결과였다.

또한 모시꽃 만들기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어르신의 소득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모시꽃 만들기로 만든 작품을 팔면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모시꽃 만들기 강사가 되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나 고성문화원은 모시꽃 만들기 운영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해야했다. 높은 수준의 문화 교육을 원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문제는 예산이었다. 모시꽃 만들기는 재료비가 비싼데 국산 모시를 사용하면 재료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한 모시를 선택해 예산을 절감했다. 그래도 국비 지원금의 많은 부분이 재료비 구입에 쓰였다.

실제로 모시꽃 만들기가 시작되자 어르신의 만족도는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는 어르신은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데, 모시꽃 만들기가 공허함을 완전히 날려준 것이다. 김 부원장은 “꽃을 만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 어르신이 많았다. 모시꽃 만들기가 우울증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다”고 말했다.

모시꽃 만들기 수강생들은 내년 어버이날 독거노인을 비롯 양로원·요양원의 무의탁노인들에게 달아줄 카네이션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 도충홍 고성문화원장은 “내년에도 어르신문화프로그램으로 모시꽃 만들기를 운영 할 예정이다. 좋은 취미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여가를 활용한 소득 창출을 원하는 어르신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전했다. 우

글 오현지

사진 청주문화원·진도민속문화예술단·고성문화원





악귀 물리치는 장승, 풍농 기원하는 솟대처럼

학교, 양로원, 장애인 찾아가 희망의 메시지 전달

이경태 '장승과 솟대' 대표

스케줄이 빼곡히 적힌 수첩을 뒤적이다 덮는 손등에서 실버 문화를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 보인다. “나는 대표가 아닙니다.” 그렇다. 그는 대표가 아니었다. 단지, 솟대와 이웃을 사랑한 한 남자였다. “늙은이에게 얼마 없는 재주인데, 희망을 나누면서 같이 만들고 소통하는 작업이 꽤 재밌더라” 말입니다. 허허.

이경태 '장승과 솟대' 대표가 환하게 웃자 얼굴에 인자함이 번진다. 약 7년 동안 실버 문화 보급에 힘써 온 이 대표는 수첩을 만지작거리며 지난 세월을 풀어놓는다. “혹시 실수라도 할까 무조건 메모했습니다. 국비가 투입된 사업이다 보니 오해가 생기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수첩이 꽤 많은데요, 이게 금은보화보다 더 귀중한 제 보물입니다.”





아이와 함께 열심히 솟대를 만들고 있는 이경태 대표

‘희망솟대’에서 ‘장승과 솟대’로 단체명 바뀌

이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평택문화원 내 웃다리문화촌에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맡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때부터 이 대표는 수첩에 강의 일정, 체험비 정산, 재료비 구입 등을 꼼꼼히 적기 시작했다고. 수첩을 쓰다듬으며 말하는 이 대표는 ‘고집 있는 상남자’였다. 이러한 이 대표에게도 아픈 상처가 있었으니, 2006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으로 짚풀공예를 시작했으나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테마를 ‘솟대’로 정했다”고 밝혔다. 솟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솟대는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 있고, 상상력을 가미하면 경쟁력을 갖춘 작품이 될 수 있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예감대로 2007년 솟대공예 교육은 히트를 쳤다.

그 이듬해인 2008년, 솟대의 짝꿍인 장승이 공예교육에 포함되면서 소소한 변화가 생겨났다. 단체명을 ‘희망솟대’에서 현재의 ‘장승과 솟대’로 바꿨다고 한다. 장승과 솟대는 평택문화원의 지원을 받아 어르신을 대상으로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명의 어르신을 4명씩 5개 조로 나눠 솟대와 장승 공예품 제작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체험비는 밥 한 끼 식사비정도의 7천 원 수준이다. 이 대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웃다리문화촌에 나와 출근도장을 찍는다. 매일 나와서 강의 계획, 준비물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마음이 편하다. 명절을 제외하고 특별히 쉬는 날은 없는 것 같다”며 멋쩍게 웃었다.

위험한 공구 사용하지 않아도 솟대 만들 수 있는 노하우 개발

우리 조상은 미술의 악귀를 물리칠길 소원하며 장승을 만들었고, 풍농(豐農)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솟대를 세웠다. 아마 모든 사람이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뜻이 숨어있지 않을까. 장승과 솟대는 우리 조상의 마음을 닮아, 먼저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간다.

이 대표는 “마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양로원, 장애인 등에 찾아가 무료로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더러 소문을 듣고 체험 수업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찾아다니며 제안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이 대표의 배려는 계속된다. 이 대표는 동작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을 가르칠 때 더욱 신경 쓴다고 한



다. 혹여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다. “위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멋진 솟대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개발했다”는 이 대표의 설명에서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2천여명 솟대 만들기 체험에 나서...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다. 장승과 솟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처음으로 솟대를 어르신문화프로그램으로 접목했던 2007년 실버문화사랑축제에 참여해 희망솟대작품 100여 점과 활동내용 등을 전시했고, 솟대 제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당시 2,000여 명의 일반인이 참가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교육 테마가 장승까지 확대됐던 2008년, 장승과 솟대는 ‘2008 실버문화사랑축제’에서 종합대상인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큰 실패와 좌절 없이 승승장구를 달리는 장승과 솟대는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뛰고 있다. 이 대표는 팀원들에게 “마라톤을 하는 마음으로 방심하지 말고 항상 열심히 하자”고 강조한다고.

“장승과 솟대는 늘 상위권에 있어서 현실에 안주할 수 있죠. 하지만 시작부터 상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부지런히 뛰어야 합니다. 앞에서 뛰고 있다고 느낀다면 결국 끝까지 뛰지 못할 수 있잖아요. 남들보다 앞서 뛰었기 때문에 쉬어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뛰어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저희가 열심히 하는 이유입니다.”

1인 5역 특심의 후계자 찾는 일이 숙제

문화에 푹 빠져서 사는 이 대표는 가끔 ‘시인’이 된다. 아직 흡족한 후계자를 찾지 못한 이 대표는 장승과 솟대의 역할을 ‘나무숲’으로 비유했다.

“장승과 솟대는 철새가 쉬어가는 나무숲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쉬어갈 수 있도록 나무 숲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죠. 1인 4~5역은 할 수 있단 각오로 들어와도 버거울지 모르겠네요. 취미생활로 쉬엄쉬엄 하려는 분은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를 찾는 일이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임무 같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고향지킴이’라 칭하며 건강이 허락하는 시



1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솟대만들기를 가르치는 모습
2 장승을 만들며 즐거워하는 외국인들
3 장승과 솟대 회원들

간까지 장승과 솟대를 지키고 싶다는 이경태 장승과 솟대 대표. “장승과 솟대가 걱정돼 함부로 아프지 못한다”는 이 대표의 말에는 지역 문화를 위한 진심이 보인다. 이심전심으로 통한 장승과 솟대의 팀원들, 그리고 평택문화원 식구들의 성실함이 웃다리문화촌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우**

글 김미화

사진 김미화, 장승과 솟대 제공

2013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 기간 : 2013년 1월~12월
전국 193개 지방문화원, 342개 프로그램

어르신문화학교 154개

서울

강동	실버 No! 골드 Yes! 색소폰 연주단 (색소폰 연주) 실버건강댄스교육 (댄스)
강서	어르신 경기민요 한마당 (민요)
광진	신나는 난타 "온달과 평강" (난타 연주)
구로	실버민요장구 (민요)
금천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 체험)
동작	동작의 마술사랑 (마술) 동작의 은물결 합창단 (합창)
마포	덩더꿍 체조 (신토놀이 체조) 교실 운영 (체조)
양천	실버 웃음치료사 과정 (웃음 치료) 천연 비누 만들기 (비누 만들기)
영등포	"영등포막걸리" 만들기 - 중급과정 (막걸리 만들기)

부산

강서	거리의 향기 애코디언 (아코디언 연주)
기장	어르신문화학교 난타교실 (난타)
낙동	구포재첩잡이 민속어로 복원 및 재현 (민요) "어리고 어리고 성조야" 구포지신밧기 재현 (민속놀이)
남구	2013실버통기타양상블 (통기타 연주)
사상	기타치는 은빛 배짱이 시즌 2 (기타 연주)
사하	전통신발 다홍신 만들기 (전통신 만들기)
서구	행복한 노년을 위한 힐링 스케치 아카데미 (서양화 그리기)
수영	민요와 장구 실버예술단 (민요, 장구연주) 하모니카 실버예술단 (하모니카 연주)
연제	희망의 은빛 예술단 (색소폰 연주) 오물 조물 절영 수공예 공방 II (공예품 제작)
영도	어르신문화학교 하모니카교실
동구	"이별의 부산정거장" (하모니카 연주)
동래	청춘을 부르는 은빛 오키나와 교실 (오키나와 연주)
부산진	두드림의 보따리 "우당탕탕~~~난타반" (난타 연주) 사진으로 전하는 사랑나눔 (사진 촬영)

대구

남구	얼~쑤 신바람 청춘합창단 (합창)
중구	실버, 리듬에 몸을 싣고 (실버 댄스스포츠)
팔공	함께! 오래! 행복! 달력 만들기 (생활체조, 생활댄스)
달성	실버시니어매직 (실버마술)
수성	어르신 도예교실 (도예)

인천

계양	흥타령 사물놀이 (사물놀이)
남동	청춘합창단, 그 소통과 화합의 하모니에 날개를 달다 (합창)
서구	"갈채"로 다시 날기 - 서구청춘합창단 "갈채" (합창)
연수	전통문화 팩토리
중구	잘 찍은 사진과 개인블로그 (사진촬영, 블로그)
강화	공예강좌 (솜씨 뽐낸 냅킨아트)



광주

광산	우리고를 차 맛 어때! (전통차 교육)
남구	알로하 은빛 앙상블 (우쿨렐레 연주)
동구	빛고을악단 단원양성 및 세대공감 공연기획 (전통소리 연주)
서구	꿈꾸는 어르신, 시와 구연동화의 풍경속으로 (구연 동화)

대전

동구	인생후반부에 아코디언과 함께 세상속으로~ (아코디언 연주)
서구	흙으로 빛는 우리미술 (도예) 우리소리 전하는 은빛 민요합창단 (민요)
유성	놀아온 「달려라 실버포장마차」 (발효음식 만들기)
중구	실버뮤직스타 (악기 연주)

울산

남구	타악 퍼포먼스 환상의 두드림! 매직난타 (난타공연)
동구	등거리농악 실버단원 양성 (민속놀이 공연)
북구	쇠부리 어르신과 함께하는 우리가락 우리몸짓 (민속놀이 공연)
중구	똑딱 똑딱 생활(生活) 난타 (난타 공연)

세종

세종	언제나 청춘 "신명나는 난타교실" (난타 공연)
----	----------------------------

경기

가평	잊혀져가는 내 고향 가평민요 우리소리 (민요)
고양	고양 늘푸른인형극단 (구연동화, 인형극)
과천	난타 이야기 마당 (난타뮤지컬)
광명	위풍당당! 실버태권무 (태권무)
구리	구리시 권원취타대 (민속놀이 공연)
김포	김포문화원 실버 경기민요 합창단 (민요 공연)
남양주	시니어 창작무용 예술단 (창작 무용)
동두천	어르신문화학교 "노곤으로 엮는 생활공예" (노곤 공예)
부천	복사골 어르신 합창단 (합창)
성남	〈찾아가는 내고장 바로 알기〉교실 (문화해설사)
오산	오산실버합창단 (합창)
의왕	행복을 전하는 의왕 은빛 실버악단 (악기 연주)
이천	물집 木공예 바람을 실어 기쁨이 일렁 (물집목공예)
파주	파주어사 (파주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사물놀이반)
평택	손짓, 몸짓으로 만드는 하모니 (수화, 합창)
포천	어화둥둥 은빛 춤사위 (무용)
하남	어르신! 웃다리 가락에 취하고 즐기다!!! (전통풍물공연)
안성	실버벽화예술단 (벽화)
양평	꽃누르미 (꽃공예)
여주	2013 다시 찾는 세종의 가치 여섯 번째 마당 - 2013 어르신 집현전 (역사해설사 양성)
연천	연천문화원 실버예술단 (악기 연주)

강원

강릉	하슬라 은빛소리 합창단 (합창)
----	-------------------

고성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육성 (민요)
동해	2013 북평원님놀이와 떠나는 문화여행! (민속놀이 공연)
속초	속초문화 알림이 '폴뮤음 문화나눔봉사단 육성' season 2 (어린이대상 책활동 장르교육)
양양	신바람 나는 양양의 어르신 연극단 (연극)
원주	우쿨렐레 "락(樂)"을 즐기다 (우쿨렐레 연주)
인제	얼썬! 내설악농악대 만들기 (농악대)
정선	고은님들의 놀이마당 "양반전" (전통연극 공연)
철원	철원의 바람과 어르신들의 세월로 깎은 현무암 공예품 제작 (현무암 공예) 철원실버그린악단 (사랑의 멜로디) 문화나눔 봉사 (음악공연)
춘천	카메라에 담은 인생여정 (사진 촬영)
대백	전래 구전가락 공연단 (민속가락 공연)
평창	스토리텔링으로 피어나는 지역문화해설사 (지역문화해설사 양성)
홍천	한 마음 부부 합창단 (합창)
횡성	우리장단 우리가락 어사매 풍물패 양성 (풍물 공연)

충북

괴산	세시봉의 추억, 통기타와 함께하는 추억여행 (통기타 연주)
보은	춤사위의 풍유를 즐기다 (전통무용)
진천	진달래가 들려주는 우는소리 (민요)
영동	난계의 고장 영동에서 배우는 풍물놀이 (풍물)
증평	이크! 예크! 불타는 청춘 택견무 (택견무)

충남

서산	한지 만들고 멋 만드는 공예교실~ (한지공예)
예산	GoldenAge 아름다운 청춘하모니♫ (아코디언, 하모니카 합창)
온양	추억의 힐링음악 데이트 (아코디언 연주)
논산	전통 색한지에 담긴 어르신공예가의 꿈 (한지공예)
당진	노래와 웃음과 아름다움이 있는 "노소미합창단" (합창)
청양	배워you 즐겨you 나뉘you (한국무용)
태안	행복한 세상 '민요로 소통하기' (민요)

전북

고창	방등산에 굴을 올려 하늘에 제사한다 (민속문화 공연)
군산	아름다운 은빛 리듬을 찾아서II (하모니카 연주)
남원	얼썬! 좋디! 명창 따라잡기 (판소리, 민요)
무주	노인일패사 老人一快事 (어르신들의 한가지 유쾌한 일) (문화해설사 양성)
부안	하모닉스 색소폰 앙상블 (색소폰 연주)
순창	옥천고를 대취타 (대취타 연주)
익산	다함께 차차차 (오카리나 연주)
임실	사랑과 건강을 그대와 (실버댄스)
전주	발 리듬속에 피는 사랑 콘서트~ (태평댄스)
진안	목향으로 꽃을 피우다 (문인화)

전남

광양	광양 실버여성합창단 문화학교 (은빛소리합창단) (합창)
곡성	"여배우 봄날" (연극)
순천	뷰티플 실버 우리 춤 흥과 멋 (전통무용)
해남	표노아, 21세기 꽃으로 피어난 연기남자 (연극)
담양	울랄라 시니어밴드 (익기 연주)
무안	놀이 찾아 나서는 시니어 풍물패 (풍물)

보성	산양 민요춤 문화학교 ("산양"은 고려시대 보성의 지명) (민요춤)
영암	氣찬 예술단의 '기타랑장구랑' (기타와 장구연주)

경북

경산	넙킨과 만난 한지스토리 (한지공예)
경주	하해!호호! 이야기주머니3 (구연동화)
고령	어르신 가야금연주단 (가야금 연주)
구미	장수실버합창단 (합창)
봉화	야생화 꽃피는 신나는 노래교실 (야생화 교육, 노래부르기)
안동	새로운 인생 활인심방으로 가꾼다 (체조)
울진	영등할마이 달님세놀이 (민속놀이)
칠곡	춤... 그 혼을 실어 (호국의 고장을 기리는 춤사위) (전통무용)
포항	포항 대(大) 취타대 (취타대 연주)
상주	우리가락 실버호예 신고 (민요)
영덕	춤바와 함께 청춘을 (건강체조)
영양	"짐과 사리나루 생명을 엮다" (공예)
청송	국제슬로시티 청송 문화·자연 해설사 양성 (문화해설사 양성)
의성	무용극 시집가는 날 (무용극)
청도	이웃과 함께하는 님타교실 (닌타)

경남

거창	실버청춘연극단 양성 및 공연 (연극단)
고성	얼~썬 "월이" 산조 창부극 (민속놀이) 모시꽃 당신 만들기 (모시꽃 공예)
남해	내 손안에 들어온 디카 (신나는 사진교실) (사진촬영)
마산	건강 100세! 실버 댄스스포츠단 양성 (댄스스포츠)
산청	산음골 실버 연극단 (마당극) 자연염색과 생활용품 만들기 (염색공예)
양산	양산전통풍물놀이 (풍물)
의령	타작소리 어르신 풍물단 양성 (풍물)
진주	진주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진해	"노래사랑 기쁨 한아름" 벗소리 합창단 (합창)
창녕	얼씨구 우리가락 철쭉구 졸을씨고-민요 (민요) 어깨춤으로 물어난 미소 (전통무용)
창원	우리고장 노래 배우기! (노래)
통영	대나무의 외출 (통영 부채·대발 제작과정)
하동	9988 하동포구 무용단 (전통무용)
함안	치녀뱃시공 노래교실 (민요)
합천	한지로 만드는 대장경판 (한지공예)

제주

제주	탐라는 은빛화음 (합창) 전통 생활문화 지도만들기 (지도만들기)
----	--

찾아가는 문화학교 이수자강사 파견 (5개 프로그램)

부산	연제	골드 - 티쳐 (색소폰 연주)
경기	과천	사랑매듭 나누미 (매듭작품 제작)
	안산	찾아가는 아코디언 교실 (아코디언 연주)

전남	목포	얼씨구! 나도 소리꾼 시즌2(민요)
	화순	세계문화유산의 고장 화순문화역사 알기(문화해설사)

찾아가는 문화학교 전문강사 파견 (28개 프로그램)

서울

광진	얼썬! 어르신과 함께 하는 신나는 국악교실 (국악)
중구	차모임 (다도)

부산

금성	어르신문화학교 (낙중이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낙중이 인형)
----	------------------------------------

광주

남구	2013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학교 "은빛 힐링캠프" (노래, 난타, 토피어리교실)
----	---

대전

대덕	이현동 다육도자 어르신협동문화학교 운영 (다육식물 재배)
----	---------------------------------

울산

중구	보훈가족 전통 문화 아카데미 (풍물, 민요)
----	--------------------------

세종

세종	나는야 노인운동지도사 (새천년 건강체조와 함께하는 건강한 삶 이야기) (체조)
----	--

경기

가평	푸른연인 무용단 (무용)
양주	함께 만들고 누리는 도예교실 (도예)
의정부	의정부 어르신 세시봉 <한울람> 시즌2 (통기타 연주)
하남	나도 플로리스트!!! (꽃 예술 체험으로 인생을 즐겁게!) (꽃예술)

충남

대천	은빛 풍물 예술단 (사물놀이)
----	------------------

전북

완주	관주골 실버악단 "이팔청춘" (하모니카와 아코디언 연주)
----	---------------------------------

전남

강진	'덩기덩' 두드리는 우리마을 문화학교 (사물놀이) 서예랑 함께하는 우리마을 문화학교 (서예)
고흥	체조 및 스포츠댄스 교실 (체조 및 스포츠댄스) 승승장구 신바람 풍물단 (당산굿 풍물)
보성	장수마을이 수놓는 "일곱색깔 무지개" (천연염색, 삼베공예)
신안	천사섬 민요합창단 (민요)

경북

구미	장천풍물보전 어르신풍물단 (풍물)
군위	군위풍물놀이 전승 및 대흥풍물단 양성 (풍물)
안동	만드는 기쁨 안동한지공예 (한지공예)
예천	비켜라 - '금빛, 은빛 군악대 나가신다' (악기 연주)

경남

남해	남해읍시장에서 부는 신바람 우크렐레 노래교실 (우크렐레 연주)
의령	어르신 '樂' 한지문화로~ (한지공예)
창원	할아버지는 요리사! (음식조리)
통영	통영 나전칠기 제작과정 (나전칠기 제작)
함양	다별골 어르신 나눔웃 물들고, 행복웃 물들다 (손뜨개)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70개 프로그램)

전통공연형

지역	문화원	프로그램명	공연 내용
서울	영등포	다듬이와 국악이 어우러진 문화한마당	국악 공연
		소리행(풍물)	풍물
부산	연제	춤사랑(무용)	전통무용
대구	서구	2013 어르신문화 나눔봉사단 "날뽕복춤 어르신 풍물단"	풍물
광주	북구	은빛소리 실버 나눔 공연단	국악
울산	중구	배움의 기쁨에서 나눔의 행복으로 "덩 덕 쿵 우리가락 좋을씨구~~~"	풍물, 민요 등
충남	공주	논두렁 발두렁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전통공연
전북	고창	동행! 어르신들의 눈부신 사랑이야기	창극, 민요 등
	담양	꽃처럼 나비처럼	민요, 춤 등
	영광	옥당고을 영광 어사또 홀도요~!	판소리, 연극, 무용 등
전남	영암	氣찬 풍물패 봉사단	풍물
	장흥	오늘같이 좋은 날	판소리, 민요 등
	진도	함께 하는 진도아리랑	전통춤, 민요 등
경북	김천	신명난 김천소리 한마당	농악, 민요 등
경남	거제	거제문화원 한국무용 -노을 봉사단	한국무용
	마산	마산 실버 우리소리 공연 봉사단	민요

합창·밴드형

지역	문화원	프로그램명	공연 내용
광주	남구	빛고을은빛하모니 문화나눔봉사단	합창
	시흥	레전드 잉벌로밴드	밴드
경기	용인	실버합창단·실버밴드 행복을 노래하라!	합창, 밴드
	의정부	골든패밀리 <총동! 1,2,3세대 한미음밴드>	밴드
	포천	포천사랑 실버악단 문화나눔 공연	밴드
전남	신안	천사섬민요합창단 문화나눔공연	합창

현대공연형

지역	문화원	프로그램명	공연 내용
서울	관악	2013 올림으로 飛上하는 열린 음악회	오케스트라
	동대문	왕언니클럽의 행복콘서트	노래, 춤
	은평	은별들의 향연	노래, 춤
부산	강서	부들청♡ 뭉춘 '靑春' 색소폰	색소폰 연주
대구	팔공	소리지음 심포니	악기연주(아코디언 등)
대전	유성	Do-Dream 실버예술단	난타
	중구	은빛소리샘 연주여행	통기타, 하모니카 연주
경기	안산	아코디언 '은빛소리' 문화나눔	아코디언 연주
	안양	두드려라! 그러면 통할 것이다.	난타
	하남	우리는야! 하모니카 악손 봉사대야!	하모니카 연주
	화성	화성춤클럽	춤 공연
강원	양구	옥피리 하모니카 봉사단	하모니카연주
전북	순창	나이야 가라! 댄스스포츠	댄스스포츠
경북	문경	꽃피는 청춘-도전하는 한 그대는 청춘이다	색소폰 연주
경남	창녕	두드리는 청춘 찾아오는 감동	난타

복합공연형

지역	문화원	프로그램명	공연 내용
부산	기장	기장문화원 차성실버나눔봉사단	악기 연주, 춤 등
	남구	오륙도문화봉사단	악기연주, 춤 등
인천	강희	외글외글 미술잔치 "찾아가는 유랑극단"	악기연주, 풍물 등
광주	광산	문화원 친구들의 나눔 하모니	노래, 전통무용 등
	동구	"빛고을동구" 문화나눔봉사단	국악, 악기 연주 등
	서구	어르신 퓨전 예술단 "따뜻한 비빔밥"	전통 및 퓨전 악기연주
충남	홍성	홍성 문화나눔봉사단	악기연주, 노래 등
	무주	돌아온 청춘	악기연주, 노래 등
전북	전주	행복한 노후지향을 위한 곳 시간나눔	판소리, 사물놀이 등
	정읍	생골은빛종합연예단이 희망나눔공연	색소폰, 아코디언 연주 등
전남	보성	"다함께 차차차" 문화나눔봉사단	노래, 춤 등
	화순	나누리 문화예술사업단	사물놀이, 농악 등
경북	영천	영천문화원 '스타 영천 문화봉사단'	민요, 난타, 가요 등
	산청	한마음 음악봉사단	색소폰, 아코디언 연주 등
경남	창녕	사랑찾아 부르릉, 행복찾아 따르릉	한국춤, 색소폰 연주 등
	함안	"희망과 기쁨" 함안문화원 어르신봉사단	농악, 춤, 시조창 등
	합천	HAPPY아라리	밴드, 민요, 사물놀이 등

연극형

지역	문화원	프로그램명	공연 내용
서울	성북	나눔이 있는 어르신문화 나눔봉사단 "희흥낙樂"	연극
	종랑	도담도담 어르신 인형극단 운영	인형극
인천	부평	은빛여울 하하의 대단한 이야기	연극
대전	대덕	대덕실버극단 《다솜바리》 '난장' 을 열다	창작연극
전남	곡성	할머니 인형극단 "민들레"	인형극
	여수	실버극단 "청춘"-각설 춘향전	연극
경북	안동	우리네 인생 내방가사로 풀어보세(내방가사 나눔이)	내방가사, 창작가사 낭송 등
경남	산청	산청 할머니 이야기 말풍선	창작 인형극

제작·체험형

지역	문화원	프로그램명	공연 내용
서울	송파	서울놀이마당 투유 전통체험	전통놀이 체험
울산	남구	동심의 세계로! 치음목공예·전통연봉사단	공예품, 전통 연
경기	양평	비누로 양평알리기	비누 만들기
	평택	장승과 솟대	장승과 솟대 제작
강원	화천	어르신 산천어공방 운영	산천어등 제작
충북	청원	청원갯비치	기죽공예 제작
	청주	할머니와 함께하는 어린이 차예절교실	다도 체험
충남	논산	더불어 별별 생각하는 기억상사 이야기	점토공예, 화분제작 등

어르신 문화동아리 활성화 (43개 프로그램)

서울

성북	수목산수화 동아리 '永墨亭' (영묵회) (수목산수화)
중구	청춘 미술실 동아리 (미술)

부산

기상	전통천연염색만 동아리반운영 (천연염색)
영도	찾아가는 절영 무용단 (전통무용)

인천

연수	어르신 기타하모니카 합주단 - 기타하모니 (기타와 하모니카 연주)
----	--------------------------------------

대전

동구	실버 아름다움에 빠지다 (사진 촬영) 찾아가 즐거움을 드리는 아코디언 합주단 (아코디언 연주)
----	---

경기

가평	쌍쌍 실버무용 동아리 (무용)
안산	실버밴드 '천하태평' 동아리 (밴드 연주)
안양	얼썬! 우리문화 즐을시고 (판소리)
의정부	연륜가득 마음가득 춤누리예술단 (한국무용, 민요, 난타 등)
포천	어린이 한자교실 강사 양성교육 2차 교재제작 (한자교육)
하남	We Are 'K-POP' Silver Dancer!!! (스포츠댄스)
화성	화성문화빛그림 "세상을 전시한다" (사진 촬영)

강원

강릉	하슬라 윈드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연주)
양구	아코디언 연주단 육성 (아코디언 연주)
영월	붓으로 어는 세상 (한국화)
원주	희로애락 오카리나 (오카리나 연주)
홍천	우리가락~ 풍물이 좋아 (풍물, 농악)

충북

보은	문화사랑 묵연회 (墨緣會) (서예)
증평	증평 실버 야생화 동호회 (야생화 연구)
청원	청원 '화락 무용단' (무용)
	청원의 시조동아리 '청산리 벽계수' (시조)

충남

서천	시조 및 판소리 동아리 (시조와 판소리)
홍성	아코디언 앙상블 (아코디언 연주)

전북

김제	김제문화원, 공연 및 전시회를 위하여 (악단 및 미술 공연)
부안	할미니의 반질고리 (컬트)
익산	판 열Go 누드리Go (풍물)
정읍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어르신 다도교실 (차예절)

전남

고흥	고흥당산문굿 전승 풍물단 (풍물)
나주	세월의 군살을 깎아 곱게 채색하여 (조각작품, 장승)
목포	전통한춤 동아리 활성화 '아깨춤 덩실덩실' (전통무용)
보성	다향 문화예술 동아리 (춤, 민요)
영암	시와 음악, 그리고 행복 (문학 활동)
장성	어르신사진클럽 품생품사 (사진 촬영)

진도

어르신 솜씨가 아름다운 짚풀공예 (짚풀공예)

함평

빛으로 쓰는 함평 스토리 (스토리텔링 사진촬영)

경북

칠곡

풍악을 울려보자 (풍물)

경남

진해

톡톡싱어즈 (합창)

통영

통영 역사문화유산 답사동아리

"통영의 역사를 찾아서" (문화 답사)

함안

춤사랑 발표회 (춤)

제주

서귀포

어르신 민속공연 동아리 (민요, 무용)

제주

어르신들, 문화유적을 말하다 (문화 답사)

어르신 생활문화전승 (11개 프로그램)

강원

동해

2013 목호등대마을 논골담길 텃밭 재생 프로젝트 (텃밭 재생)

정선

어르신들이 만드는 "나룻배와 주막이 있는 문화 (나룻배와 주막운영)

춘천

백년 터울 더듬어 가정리 길을 걷는다 (의병제주, 전통음식 전승)

평창

힐링 음식체험, 평창군 도시리 자연발상 (전통발상)

전북

고창

무장칠거리당산 용담기놀이 재연 (민속놀이)

무주

붓꽃이 춤추는 마을 (시즌II-글 읽는 마을) (민속놀이)

전남

강진

풍년 기원 '갯제' 살리기 프로젝트 (세시풍속)

영광

있다! 있다! 있다! 효동 생활문화전승 체험학교 (생활문화 전승)

진도

노 저어라 뱃놀이 가자 (뱃놀이 체험)

경남

거창

과거길 따라 한양가세 III (길조성, 전통문화 체험)

제주

서귀포

어르신 문화로 가꾸는 "이야기마을" (시민문화 체험)



4행의 노랫말에 담긴

아리랑의 비밀

한국의 산하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선율과 감동적인 노랫말을 담은 가장 한국적인 노래, <아리랑>. 하지만 아리랑이 언제부터 불리기 시작했는지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리랑에 관한 기록은 18세기 말부터 등장한다.

1895년 이후 지금까지 채집된 다수의 아리랑과 채록된 가사들을 보면 아리랑은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불렸다. 또한 그 연원을 추적하면 민족의 이동과 궤적을 같이 했다. 때문에 아리랑은 전국에 걸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같은 내용은 가장 이른 기록 중의 하나인 1912년의 민요수집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불러...경기, 정선, 밀양, 진도 향토성 짙어

아리랑은 전국 각지에 걸쳐 불렀다. 경기도(여주, 죽산, 안산, 광주), 충청남도(석성, 부여, 정산, 태산), 충청북도(청풍), 전라남도(영주, 정주, 진도), 전라북도(김제, 전주, 진안, 군산), 경상북도, 경상남도(밀양), 강원도(평강, 영월, 양구, 원주, 통천, 정선, 대백), 평안북도(영변, 의주), 함경남도, 황해도, 제주도(제주, 정의, 영주, 조천) 등에 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서도 경기, 정선, 밀양, 진도 등의 아리랑은 짙은 향토성을 띠고 있다. 풍부한 가사와 음률적인 특성으로 대표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아리랑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 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아리랑'과 '아라리요'는 뜻 모르는 후렴구이고, 아리랑 고개는 추상적인 고개이며, 노랫말의 내용은 남이 가시다가 발병나는 노래로 오해하는 것이 대표적 편견이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한다.

즉, 기록 속의 '아리랑'은 여성을 뜻하는 '아리랑(阿里娘)'이며 신성염곡(新聲艷曲)·곡연음희(曲宴淫戲)라는 특성이 있다. 시기적으로는 조선 시대 초기에 노랫말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방임주의 또는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비폭력 비협동주의(非協同主義)의 노래로 바뀌었다. 노래의 운율은 애조(哀調)를 띄며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의 내용과 동시에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의 변풍(變風)을 표현했지만 속내는 비밀결사(秘密結社)의 이야기를 감추고 있다.

노래 탄생의 시기적 성격상 생활의 만화경(萬畵鏡)을 나타내며, 오랜 연월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 본래는 물과 관련된

노래이지만, 재편의 과정에서 한(恨)을 표현하게 되는 등 다양한 특성을 갖는 장르로 기록되었다.

일제 식민통치 강화하기 위해 아이롱설 등 6개 설 퍼뜨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우리는 아리랑을 뜻 모르는 후렴구의 노래로 알게 됐을까? 관련 기록들과 연구사를 고찰해 보면, 지금까지 아리랑 연구의 연원으로 간주한 주장이 전혀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 조선총독부에서 제기한 6개의 아리랑 발생설은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식민사관의 결정체다. 한민족의 혼(魂)인 아리랑을 훼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주장이었다. 그중에서 아이롱(我耳聾)설, 아리랑(我離娘)설, 아난리(我難離)설, 아랑(阿娘)설은 조선 망국의 책임이 대원군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압제(壓制)에 있다고 함으로써,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전개하려는 논리를 숨기고 있다.

아랑위(兒郎偉)설은 조선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사상(思想)이 없는 무창견(無創見)의 민족이므로 일제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알영(關英)설은 왜곡된 역사관에 근거하여 신라 시조 박혁거세는 일본 왕족이며 신라는 고대로부터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조선이 식민지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민사관에 뿌리를 둔 논리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아리랑 발생설은 아리랑과 유사한 발음의 한자를 대입해 아리랑 노래의 유래를 논함으로써 뜻을 모르는 노래로 희화화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논리 체계를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조선총독부의 아리랑 발생설을 사실

로 받아들이는 현실이다.

나아가 아리랑을 <본조 아리랑>으로 부르는 것은 심각한 오해다. 조선총독부에서 제기한 <별조 아리랑>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학술적 비평을 하지 못할지언정, 그대로 응용해 답습한 부끄러운 결과다. <별조 아리랑>이 6행의 노래여서 4행으로 된 아리랑을 <본조 아리랑>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잘못됐다.

아리랑은 정치적 메시지를 함축한 ‘암호문’

우리한 일부 설과 달리 역사적 기록에 나타나는 아리랑은 전혀 단순하지 않다. 아리랑의 노랫말에 본질적 성격을 대입하면 아리랑의 가치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리랑이 단순한 민요가 아니며, 영화에서 처음 만들어진 유행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리랑은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노랫말 속에 고도의 메시지를 숨기고 있는 여말선초의 참요로 지금의 암호문에 해당하는 특수한 문장이었다.

암호문을 여는 비밀의 열쇠는 ‘아리랑 쓰리랑(啊女郎 是女郎)’에 담긴 시문법에 있다. 아리랑은 ‘신성한 아가씨(女郎)’라는 암호화된 뜻과 ‘푸른 물결 시린 물결’이라는 원래의 뜻, ‘아니랑께 신이랑께’라는 전라도 사투리의 상징적인 뜻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러한 암호해독열쇠를 노랫말에 대입해 600년 전의 인어로 재구하면 아리랑에는 ‘푸른 물결’을 뜻하는 ‘아리 이랑’과 ‘신성한 이가씨’를 의미하는 ‘이아 리랑’이라는 형태가 있으

며, 노랫말 속에는 한문과 고려어로 된 5개의 아리랑 이야기가 존재한다. 아리랑은 1392년 7월 28일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성립되던 왕조 교체기에 당시의 수도였던 개경의 만수산 두문동에서 만들어진 비밀결사의 참요였다. 한문 대화체로 된



아리랑은 ‘충신은 한 임금만을 섬긴다’는 불사이군(不事二君)을 나타낸다. 반면 국문 대화체로 된 아리랑은 젊은 아가씨가 스님에게 “나를 베리고 가오 스님은!”이라는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인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詩)로 변모한다. 아리랑은 비교 문학상 원곡(元曲)과 유사한 형태로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가극으로 상연한 것이다. 남녀 간 대화의 내용을 변형하면 기극 속의 주제가 되며, 바로 우리가 부르는 아리랑의 원형인 ‘고려어로 된 아리랑’이 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남자 아女郎! 阿女郎! 阿那裏呦?

아리랑 곡에- 나마간다

阿女郎, 勾勾兒著 南無, 我感戴!

날 바리고 가시- 니른

여자 那兒, 把我立刻 告訴 你們,

십리도 못가서 발화병난다

是你- 麼? 告訴我, 把話柄亂道!

여말선초의 급박한 상황을 공녀의 한으로 표현

독백체 노래로 된 아리랑은 여말선초의 급박한 역사적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직접 표현할 수 없기에, 노랫말의 외면적 의미를 달리 표현했다. 노랫말로 표현된 아리랑은 고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심층 구조를 내면에 숨긴 채, 북쪽 나라로 끌려가는 고려 공녀의 한 맺힌 이야기를 표현했다. 그러한 이유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맺힌 노래로 느끼는 것이다. 고려 유신들은 다중의적 상징성을 가진 참요 아리랑을 통해 전국에 있는 동지들과 더불어 2년 여에 걸쳐 비밀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개경 만수산 두문동에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전국적으로 온갖 형태의 참요들이 이에 화답하여 창화(唱和)하며 자신들만이 이해하는 암호문 통신 체계로 비밀스러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1394년 11월 17일 노랫말에 숨겨진 내용 일부가 조선군 암호해독부대에 의해 풀이되면서 두

문동은 불태워져 말살되고 노래는 금지곡이 된다.

19세기 말 민족의 노래로 성장

금지곡 상태에서 구전되던 아리랑은 조선이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언어적인 변화를 겪는다. 이후 오랜 시간 민간에서만 조심스럽게 불렀던 고려의 아리랑은 19세기 말 드디어 궁궐에 입성한다. 궁궐에서 아리랑을 공연함으로써 조선의 노래로 공인받은 것이다. 아리랑은 이를 바탕으로 '민족(民族)의 노래'로 성장하게 됐다. 1926년 10월 1일 민간에서 불리던 아리랑이 영화 아리랑 속의 유행가로 편집되면서 노랫말에 변형이 일어나고 의미상의 변화가 동반됐다. 한 예로 노랫말에 나오는 '십 리'라는 거리는 명사십리 해당화 등과 같이 먼 거리를 상징하게 됐다. 십 리와 결합한 조사인 '도'는 짧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만 쓰이는 '도'가 됐다. '십 리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 됨으로써 아리랑은 뜻 모르는 후렴구의 노래로 재편된 것이다. 그렇지만 노랫말을 편집한 사람들도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고, 노래를 부르는 우리 자신도 지금까지 몰랐다.

변이와 지속의 과정에서 가사의 일부분이 변해 내려왔다. 그러나 노래는 일정 부분 원형으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는 까닭에 아리랑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았다.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나 영화에서 불린 유행가가 아니라, 망해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던 충신들의 삶과 죽음의 대서사시인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아리랑은 한민족의 혼이요, 민요의 정수가 되었다.

이처럼 아리랑은 단순히 뜻을 모르는 후렴구의 노래가 아니다. 아리랑은 한민족의 5천 년의 역사를 4행의 노랫말로 압축한 위대한 민족의 서사시이며 역사서로서, 천손의 후예임을 웅변하고 있다. 앞으로 아리랑에 나타나는 애국애족의 정신과 인류 사랑의 위대한 정신문화 유산을 다양한 형태의 민족문화 콘텐츠로 만들어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글 조용호 문학박사 「아리랑 원형연구」 저자



삶과 情이 깃든 우리네 웰빙 떡!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했고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했다. 인생은 ‘누워서 떡 먹기’이거나 ‘그림의 떡’이다. 모두 떡과 관련된 재미있는 우리네 속담이다.

이처럼 우리는 예로부터 떡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다. 농경 사회로 성장하면서 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 자연스럽게 떡을 귀하고 친근하게 느껴 속담 소재에 등장한 것이다. 지금은 빵, 과자 등 밀가루 음식에 다소 밀렸지만 여전히 우리 민족의 최고 간식거리는 떡이다.



떡의 역사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시작

떡은 빵과 다르다. 빵이 서양식 문화라면 떡은 동양식 문화다. 떡에는 우리 전통 생활문화가 담겨져 있다. 그것은 삶과 정(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떡의 연원을 따지자면 자그마치 15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시루’가 있다. 역사 전문가는 청동기시대 유적인 나진초도페총에서 출토된 시루가 관련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증거를 토대로 떡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만들어 먹었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떡에 대한 역사 기록은 삼국유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국유사의 가락국기(駕洛國記)에 제물 품목으로 떡이 등장했다. 또한 ‘열전 백결선생(列傳 百結先生)조’에 나오는 신라 시대의 ‘백결선생 떡방아’ 이야기는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백결선생은 옷을 기워 입을 정도로 매우 가난한 거문고 연주자였다. 어느 날 아내가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떡방아 소리에 상심하자, 백결선생이 거문고를 타서 방아소리를 내며 위로했다고 한다.

조선 시대에는 떡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다. 궁중에서는 각색메시루떡, 각색차시루떡, 각색조약, 화전, 각색단자 등을 높이 1자 8치(약 54.5cm)로 높게 올려 연회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시대 때 혼례, 빈례, 제례 등 행사에 떡을 사용한 풍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떡은 과거의 영광을 되돌리기 위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한때 싸고 간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빵, 과자, 패스트푸드 등에 밀렸지만 ‘웰빙 건강식’으로 활로를 찾았다. 많은 떡집이 현대인의 까다로운 입맛을 잡기 위해 국내산 재료로 맛있고, 소포장해 식사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떡을 생산하고 있다. 특별한 날엔 예쁜 떡케이크를 선택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송편

음력 8월 보름인 추석은 ‘송편 먹는 날’이다. 송편은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차린 차례상에 등장하는 음식이다. 송편의 유래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따르면 백제 의자왕은 등에 ‘백제는 만월(滿月)이고 신라는 반달이다’는 말이 새겨진 거북이를 만났다. 점술가를 불러 무슨 뜻인지 묻자 “백제는 가득 찬 보름달이라 기울 일만 남

았고 신라는 새로 차오르는 반달과 같아 흥할 일만 남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 소문이 퍼지자, 신라에서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반달 모양의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송편은 지방마다 특색이 있다. 강원도와 황해도만두처럼 만들고, 남도 지방에서는 모싯잎을 삶아 넣은 모싯잎송편이 유명하다. 쑥, 자색고구마 등으로 색을 내고 소의 재료로 깨, 콩, 고구마, 밤 등을 넣어 다양한 맛을 낸다. ‘송편을 예쁘게 잘 빚으면 좋은 곳에 시집가고 예쁜 딸을 낳는다’고 하여 처녀들이 공을 들여 만들던 추억의 떡이다.



송편

인절미

불린 찹쌀을 밥처럼 찌서 안반, 절구 등에 담고 떡메로 쳐서 만든 떡이다. 한입 크기로 썰어 고물을 묻혀 먹으면 쫄깃함과 고소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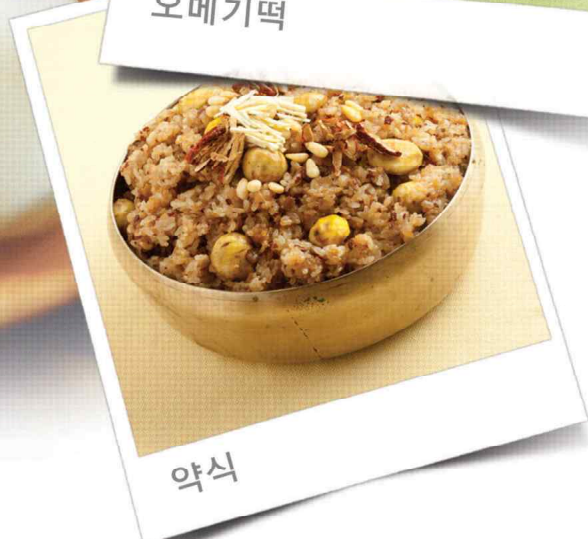
인절미는 조선의 왕인 인조와 관련이 깊다. 인조는 이괄의 난을 피해 충남 공주의 공산성으로 몸을 숨겼다. 공주의 백성 중 임 씨가 떡을 만들어 바쳤는데 인조가 감탄하며 맛있게 먹었다고 한다. “참으로 절미로구나”라는 인조의 말에서 유래돼 ‘인조임금절미’로 불리나 지금의 인절미가 됐다고 한다.



인절미



오메기떡



약식

우리 조상들은
붉은 팔고물, 노란 콩가루, 깨가루 등을
고물로 버무려 먹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주부들을 중심으로
카스텔라 빵가루를 묻혀 먹는 방식이 인기가.

약식

밥알이 살아있는 겉모습에 밥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약식은
엄연히 떡의 한 종류다. 약반, 약밥이라고도 불린다. 대추,
밤, 잣 등을 잘게 썰어 넣은 찹쌀을 찐 후 기름, 꿀, 간장 등
을 버무려 모양을 만들면 된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까마귀 한 마리가 출타 중이던 신라 소지
왕에게 다가와 위험에 빠졌음을 알렸다고 한다. 바로 소지왕
은 환궁해 신하와 궁주(宮主)를 활로 쏘아 죽여 역모의 위험
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이후 성월대보름을 오기일(烏忌日)로
정하고 검은색 약밥을 지어 까마귀에게 먹이로 줬다고 한다.

요즘 약식은 전기압력밥솥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취향
에 따라 아몬드, 체리, 호두, 건포도 등을 넣으면 색다른 맛
을 느낄 수 있다.

오메기떡

쌀이 귀했던 제주도는 좁쌀가루로 만든 오메기떡을 먹었다.
차조가루를 익반죽해 도넛처럼 가운데를 오목하게 만들어 삶
고, 콩가루나 팔고물을 묻히면 오메기떡이 된다. 오목하게 눌
러준다는 뜻의 방언이 ‘오메기’여서 오메기떡으로 불렸다.



특이하게 오메기떡은 오메기술의 재료가 된다.

오메기떡을 누룩가루와 버무려 항아리에 넣은 후, 떡을 삶은 물을 식혀서 부으면 60일 뒤에 맛있는 오메기술이 된다. 오메기술은 제주도의 전통토속주 중 하나이며 ‘탁배기’라고도 한다.

백설기

하얗고 두껍게 쌓인 눈을 두고 “마치 백설기 같다”고 한다. 백설기는 겨울에 내리는 눈처럼 하얗고 고운 떡이다. 주재료로 쌀가루 외에 아무것도 넣지 않아 순수함, 깨끗함, 신성한 등을 상징한다. 예로부터 아기 삼칠일(三七日), 백일, 돌에 백설기를 만들었다. 또한 제사를 지내거나 굿을 할 때도 백설기를 올렸다.

백설기는 시루떡 중에서 만드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다. 멥쌀가루에 설탕물 또는 꿀을 내리고 시루에 안쳐 찌면 된다. 멥쌀가루가 고울수록 모양이 예쁘고 맛은 부드럽다.

팔시루떡

팔의 붉은색이 잡귀를 쫓는다는 속설 때문에 예로부터 특별한 날에 지주 해먹던 떡이다. 고사를 지내거나 함 받을 때 팔시루떡을 준비한다. 이사한 후 이웃에게 팔시루떡을 돌리는 풍속은 지금까지 남아있다.

팔시루떡은 백설기처럼 시루에 찌서 만든다. 떡시루에 팔고물, 멥쌀가루, 팔고물, 참쌀가루, 팔고물 순으로 안쳐 찌내면 된다.

팔시루떡의 유래는 명확하지 않지만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추수가 끝난 음력 10월 상달에 팔시루떡을 지어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또한 동국세시기에 정월 첫 말날(午日)에 붉은 팔시루떡과 돼지머리 등을 놓고 고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글 고만정
사진제공 농촌진흥청

지방문화원 SNS홍보 성공하려면

소소한 이야기 올리고 '좋아요' 눌러라!

SNS 시대다. 아침 출근길 풍속도가 바뀐지 오래다.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직장인들이 보는 것은 네이버가 아닌 페이스북이다. 필자 역시 어젯밤에 올린 페이스북 포스팅에 어떤 댓글들이 달렸을까 궁금해지곤 한다. 또 어떤 이는 이메일이나 카톡 대신에 페이스북 메신저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보면 소셜미디어는 이제 전 국민의 소통 수단이다. 스마트폰의 등장이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주목할 것은 미디어 소유주가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최근까지는 매스미디어를 지배한 계층이 커뮤니케이션 파워를 가졌는데 소셜미디어시대로 진입해서는 개인들도 커뮤니케이션 파워를 지니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21세기가 시작되면서 개인들도 홈페이지를 갖게 되어 특정 그룹의 소유물이나 다름없던 미디어가 개인에게로 이양되는 현상을 보인데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SNS의 3각구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SNS는 크게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로 대변된다. 그 중 블로그는 온라인 마케팅의 베이스캠프다. 트위터는 메시지 전달의 속도와 파급면에서 월등하다. 페이스북은 친구라는 관계 속에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곤 한다. 이런 속성 때문에 40대층에서 많이 사용한다. 페이스북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70개국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한 달 평균 300억 건의 정보가 유통되고 매일 7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블로그는 이들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정보제공 원천 역할을 한다.

많은 지역민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 지방문화원 임직원들 사이에서 SNS 이용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40대 이상층으로 이뤄진 문화원 임직원들은 트위터보다 페이스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직까지 소셜미디어는 문화원 형편상 전담 부서나 담당자를 두기 어렵지만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포스팅 업로드 범위나 횟수, 주의사항 등 일정한 규칙을 정해 SNS를 운영할 경우 저비용 고효율의 소통 효과를 낼 수 있다.

포스팅 기준 정해 활용하면 저비용·고효율 소통수단

SNS는 개인이나 조직이 소유하는 인론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외부의 의견이나 주장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휴대폰 요금이나 다소 들쭉날쭉한 그밖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큰 매력 아닐 수 없다. 특히나 댓글과 댓글로 이어지는 소통은 특정 사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해 중국에는 문화원의 현안을 푸는 집단지성과 동력을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소셜미디어가 기존 매체에 비해 훨씬 전달력이 강력하고 자발적인 매체인데다 SNS 이용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SNS 통해 인지도 높이면서 여론분석도

좀 더 구체적으로 문화원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자면 7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면 문화원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문화원의 행사나 소식을 노출시킬 수 있다.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검색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기존회원의 성향을 알고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연구팀은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분석한 결과 성별이나 피부색, 정치성향, 종교, 약물복용 여부를 최소 65%~최대 95%까지 알아맞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우려한 내용이지만 문화원의 경우 회원의 성향이나 관점을 알게 돼 그에 맞게 회원모집이나 회원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셋째, 회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문화원이 정기 행사나 신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숨은 반응들을 찾아낼 수 있어 차기 프로그램을 위한 여론수렴의 장이 된다.

넷째, 신규회원 및 동호회 지원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다. 문화원 위치나 정보 등 사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다. 또한 공식적으로 물어보기 어려운 내용들 역시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 문화원 회원 지방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코너가 된다. 이처럼 1대1 상담은 전달 기능에 비중을 둔 이메일과는 차원이 다른 소셜미디어만의 강력한 소통기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원의 문화예술상좌 수상생 모임이나 동호회 모임의 경우 아직까지는 고령자가 많아 SNS를 적용하기 쉽지 않지만 강좌 종류나 회원들의 성향을 고려해 페이스북의 그룹 기능을 추가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

다섯째, 새로운 행사에 대한 아이디어나 컨셉, 운영에 대한 여론을 들을 수 있다. 게다가 어디서 물어봐야 할 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소셜미디어 친구들이 답을 해준다. 꽃사진을 찍어 올리면 굳이 도감을 뒤적이지 않더라도 이게 무슨 꽃인지 알 수 있다. 필자는 몇해 전 두물머리에 놀러갔다가 화사한 꽃을 봤는데 무슨 꽃인지 몰라 답답했었는데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얼마 안있어 페이스북 친구가 댓글로 답을 해주어 궁금증이 풀렸었다.

여섯째, 이벤트·프로모션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름휴가철 문화행사나 맛집, 저렴하게 묵을 수 있는 농어산촌 민박 등을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 주목을 끌 수 있다. 문화원사 건립의 필요성, 조례의 제정 문제 등 문화원이 당면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이슈를 제기하고 여론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 대전 대덕문화원을 방문



이 직까지 소셜미디어는 문화원 형편상 전담 부서나 담당자를 두기 어렵지만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포스팅 업로드 범위나 횟수, 주의사항 등 일정한 규칙을 정해 SNS를 운영할 경우 **저비용 고효율의 소통 효과**를 낼 수 있다.



한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문화원의 원사 건립 필요성은 페이스북에 올린 사무국장의 포스팅을 보고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개인과 조직 이야기 번갈아 포스팅

그렇다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중견기업 수준이라면 전담 부서나 담당자를 선임해 놓으면 좋겠지만 문화원의 경우에는 그럴 형편이 안되므로 개인이 SNS를 운영하며 조직의 이야기를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좋다. 현재 문화원 임직원 가운데는 개인과 조직의 이야기를 섞어가며 포스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연섭 동해문화원 사무국장은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대전 유성온천 문화의 거리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청춘콘서트를 소개한 바 있다. 이 포스팅에 나와 있는 출연진 소개를 보고 조연섭 국장이 전직 DJ이면서 아나운서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와 동시에 대전 유성문화원이 청춘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이상민 완주문화원 사무국장 페이스북에는 여행길에서 느낀 제주도의 아픈 역사와 물질 나가는 해녀할망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타 지역에 대한 감성적 터치가 눈길을 끈다. 또 조성문 여주문화원 사무국장은

여주도서관 주최로 나루터 기행을 다녀왔으며 여주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에 함께 하신 분들과 준비하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장경호 과천문화원 사무국장의 페이스북에는 작은아들과 등산 간 개인사진이 올라와 있는가 하면 옛날 산신제를 올리던 '도당터'에 대한 설명문 사진이 올라와 있다. 최종수 전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역시 페이스북에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각종 문화행사를 소개하고 참가 소감을 짧을 글로 표현하고 있다. 시골길을 자전거 타고 시원스럽게 달리는 사진은 페이스북 친구들로 부터 큰 인기를 끌며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밖에 고성환 문경문화원 사무국장, 김성연 울산중구문화원 사무국장, 김영자 대전문화원 부장, 김인섭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이준창 논산문화원 사무국장이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도 전명찬 팀장, 김태현 팀장, 이민아 실버사업 담당자가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며 문화원 가족들을 '친구'로 만드는 중계자적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에 힘쓰고 개인 얼굴 공개해야

그런데 문화원 임직원들의 포스팅을 분석해 보면 단순히 지역신문을 링크 걸어 두거나 사진 한 장만 덜렁 올리는 경우

문화원의 경우에는 **개인**이 SNS를 운영하며 **조직의 이야기**를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좋다. 현재 문화원 임직원 가운데는 개인과 조직의 이야기를 섞어가며 포스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 많다. 이는 스토리텔링이란 측면에서 볼 때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이왕이면 몇 줄이라도 해당 링크나 사진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을 코멘트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프로필사진은 로고나 동식물, 건물, 풍경 보다는 얼굴을 올리는 게 신뢰도가 높다. 미남미녀 이진 추남추녀이진 얼굴은 친근감과 신뢰감을 주고 대화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런가하면 어떤 이는 아들딸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아들딸 사진이 아닌 아들딸과 같이 있는 사진을 올리는 게 좋다. 또 로고를 넣고 싶거나 애완용인 개나 고양이를 보여주고 싶다면 로고나 애완동물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요령이다.

이제 SNS는 또 하나의 세상이다. 이들 SNS매체와 연결되지 않으면 지방문화원의 홈페이지 역시 외로운 섬으로 남게 된다. 소셜미디어는 문화원의 행사를 알리고 회원들의 요구에 응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문화원에 대한 반응이나 문화원 안팎에 도사리고 있는 위기적 요인 대응에도 적절한 매체다. 

글 강민철 홍보컨설턴트
사진 문화원 임직원 페이스북

눈길 끄는 포스팅을 하려면!

1. 고객의 말투를 답아라

처음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포스팅을 보면 군대도 아닌데 소위 '다나까' 식의 어투가 대부분인데 어려운 단어를 배제하고 대화하듯 조금은 편하게 문장을 쓸 필요가 있다.

2. 작은 이벤트라도 계속하라

지방문화원의 특성에 맞게 향토색 물씬 풍기는 상품을 경품으로 걸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3. 반드시 댓글을 달아라

포스팅만 하고 폐친의 댓글에 '좋아요'도 누르지 않고 댓글도 달지 않는 것은 소통의 자세가 아니다. 댓글은 소셜미디어의 근간을 이루는 쌍방향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다.

4. 소소한 이야기를 답아라

1등했다는 결과적 내용 보다는 2등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야기가 SNS에서 더 매력적인 콘텐츠가 된다. 문화원이 매년 개최하는 사진전시회의 경우 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는 사실보다도 사진 전시회를 준비하기까지의 '비공개' 내용들이 더 흥미가 간다.

5. 자연스런 사진을 올려라

반듯하게 앉아있는 단체사진 보다 움직이는 사진이 좋다.

6. 남의 포스팅을 공유하라

유명인사나 전문가의 포스팅 가운데서 눈길 끌고 유용한 포스팅을 골라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도 요령이다.

7. 음식+3B를 적용하라

음식은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댓글이 달리는 아이템중의 하나다. 광고의 단골이 beauty(미인), Beast(동물), Baby(아이)라 한다면 소셜미디어의 대표적 단골은 음식이다. 지역의 고유 음식을 폐북에 시리즈로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







산천어 어디 숨었나

드넓은 빙판 위를 눈썰매를 타고 달려보자. 2014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가 1월 4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겨울철 이색테마 축제로 손꼽히는 화천산천어축제는 40cm가 넘게 어는 화천천의 두꺼운 얼음 아래에서 노니는 산천어를 맨손으로 잡는 프로그램을 비롯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산천어 얼음낚시'와 '창작눈썰매' 등 약 30여종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볼거리가 가득하다. 특히나 2014년에 열리는 산천어축제는 세계 7대불가사의 선정과 더불어 세계4대 겨울축제다운 면모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 겨울 산천어와 수달이 사는 산천으로 떠나보자. **우**

글 김미화

사진제공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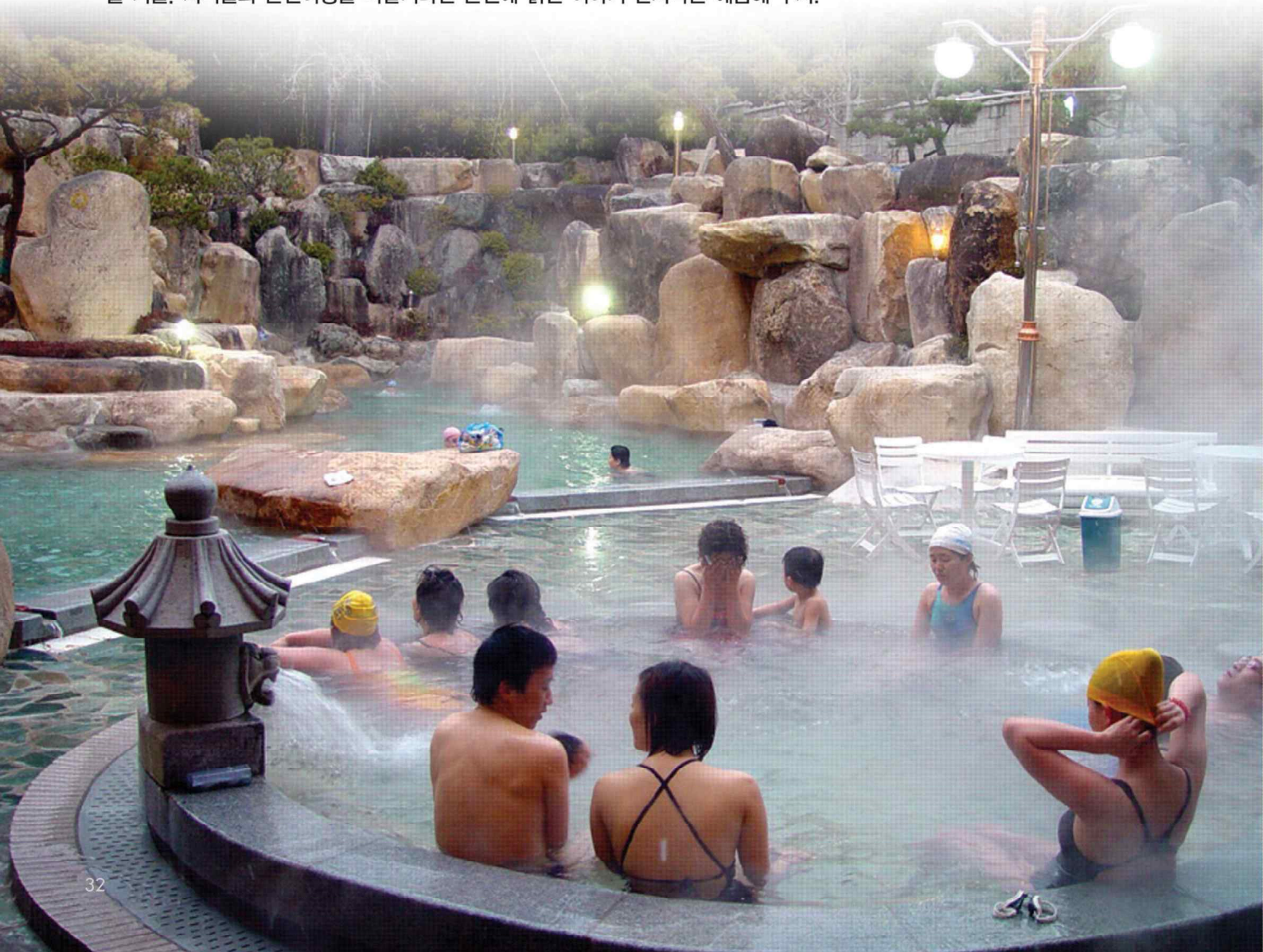


발 뭉글 뭉글 구르는 한겨울 온천여행

온천에 몸 담고 삶은 계란 먹으면 왕이 따로 없네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면 온천이 생각난다. 현대사회에서 대표적 관광지의 하나인 온천은 수천 년 전에는 왕의 특권으로 서민은 꿈도 못 꾸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가볼 수 있는 곳이다.

올 겨울! 자녀들과 온천여행을 떠날거라면 온천에 얹힌 이야기 한자락을 예습해 두자.



온천이란 화산활동이나 높은 지열(地熱)로 데워진 지하수가 땅위로 올라온 물이다. 우리나라는 25도 이상의 지하수를 온천으로 분류하고 있다. 온천의 발전은 인류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양에서는 그리스인이 최초로 온천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양 의학의 선구자인 히포크라테스는 “찬물과 뜨거운 물에 교대로 몸을 담그면 체액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고, 로마 시대에는 온천을 이용한 대욕탕이 건설됐다. 우리나라의 온천 역사는 왕을 중심으로 흘렀다.

왕이 사랑한 온천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온천은 ‘동래온천’(현 부산 동래구 소재)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712년 4월 신라 성덕왕은 장산국 온천에서 목욕을 마치고 성으로 돌아가던 중 영취산 일대에서 기연(機緣)을 맺어 영취사를 지었다. 여기서 장산국 온천은 현재의 동래온천을 말한다.

온천은 삼국사기에도 등장한다. 현재 온양온천은 백제 시대 때 탕정군(湯井郡, 끓는 우물)으로 불렸다. 고려 시대에는 온수군(溫水郡)으로, 조선 태종 때 이웃 신창(新昌)과 합쳐 온창이 되었다. 이후 세종대왕이 ‘병을 치료했다’ 하여 ‘온양군’으로 승격 개칭했다. 백제 시대부터 ‘물이 끓는다는 뜻’의 지명을 가진 것으로 보아, 우리 조상이 온양을 온천 지역으로 인식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고려 시대부터 왕은 온천을 통해 남다른 신하 사랑을 전했다. 문하시중 한언공(韓彦恭)이 온천을 이용한 사연을 보면 깊은 군신유의가 느껴진다. 목종은 한언공의 깊은 병을 낫게 하도록 명의, 약물, 수레 등을 내려주면서 온천에서 목욕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목종의 극진한 배려에도 한언공은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선종의 경우, 병든 부모님의 온천 치료를 원하는 관리에게 휴가를 줬다. 휴가 기간은 온천의 거리를 따져 정했다.

한편 고려 시대 기록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온천 지명이 등장한다. 동래, 유성, 온양, 영산(부곡), 평해, 백천, 이천, 고성, 신주, 성주 등에서 온천욕을 즐긴 것으로 보인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온천 휴양을 좋아한 왕으로 유명하다.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황해도 평주 온천에서 휴가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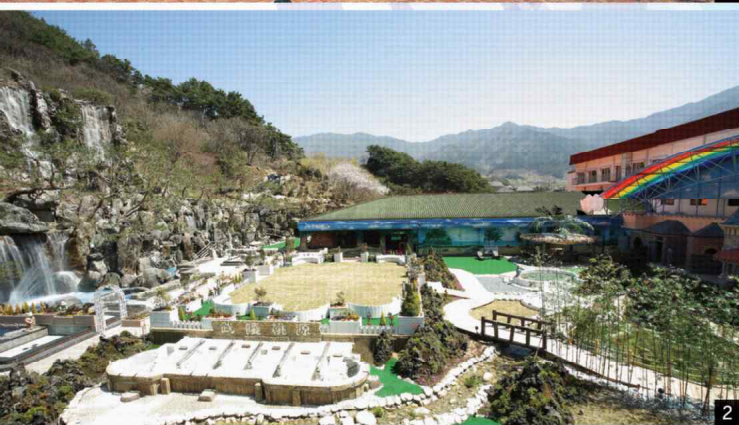
온양행궁 관광 명소로 거듭 태어나

우리 조상은 온천을 ‘치료 목적’으로 애용했다. 동의보감은 ‘온천수가 피부병에 효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로부터 온천물에 부용향, 소목, 강황, 작설 등의 약재를 넣으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알려졌다.

세종대왕이 지명의 완치를 위해 자주 왕래했던 온천의료기관인 온양행궁(溫陽行宮, 왕과 왕실가족이 온천욕을 한 곳, 이하 온궁)은 유명한 관광자원으로 거듭났다. 지난 10월 안전



1



2



3

- 1 부곡온천 분수대 족욕체험
- 2 지리산온천랜드 노천온천테마파크전경
- 3 지리산온천랜드(노천야경)

행정부와 충청남도 주최, 충남 아산시가 주관한 '2013 대한
민국 온천대축제'는 '온궁의 부활'이란 주제로 열렸다.
현대인은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수단으로 온천을 애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각지에는 온천을 보유한 리조트, 워터파크
등이 성황이다. 바쁜 사회생활, 운동 부족으로 온몸이 빠근

한 현대인은 온천욕을 하며 긴장을 풀고 휴식한다. 특히 아
토피 피부병에 신음하는 자녀를 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온천
에 자주 온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물이 끝내주는' 온천이 산재하고 있다.
방에서 웅크리며 추운 겨울을 보내지 말고 쿵쿵 쿵쿵 터지는 온
천수에 몸을 맡겨보자. 역사가 깊고 수질이 뛰어난 유명 온
천이 한겨울 추위를 저만치 날려준다.

세종·세조·현종이 찾던 온양온천

충남 아산시 온천동을 중심으로 위치한 온양온천의 역사는
약 1,300년으로 추정된다. 온양온천은 백제 시대부터 유명
했다. 조선 시대에는 세종, 세조, 현종 등이 찾아와 병을 치
료하거나 휴양했다. 온양온천에 가면 왕이 남긴 수 많은 유
적을 만날 수 있다.

온양온천은 수온이 약 44도, 수질은 약알칼리성으로 피부
병, 신경통 등에 주효하다. 워낙 수량이 풍부해 많은 숙박시
설에서 온천수를 만날 수 있다. 수도권 광역전철이 개통되면
서 온양온천역이 신설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

신경통·피부병·위장병에 효능 있는 도고온천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에 있는 도고온천은 신라 시대 때
약수터로 명성을 날렸으나, 그로부터 한참 후인 일제강점기
때 온천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도고온천은 약알칼리성 유
황천으로 수질이 빼어나 신경통, 피부병, 위장병 등에 효능
이 있다. 수온은 26~30도로 낮은 편이라 가열해 온천수로
사용한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고'는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와 충청
남도 아산시가 '보양 온천'으로 지정한 명소이다. 동양4대
함유황온천으로도 불린다. 함유황온천은 상처를 빨리 아물
게 하는 힘이 있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 피부건선 등 피부
병 개선에 도움이 된다. 또한 최대 5,000여 명을 수용하는 2
만4621㎡ 규모와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춰 가족 단위 관
광객의 선호도가 높다.

전국 최고의 수온 자랑하는 부곡온천

'가마솥처럼 생겼다'는 뜻의 경남 부곡은 옛날부터 옴 환자와
나병 환자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주 찾은 곳이다. 오래

전부터 '옴샘(부곡 내 마을 지명)에 가면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있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지면서 부곡온천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다.

현대에 이르러, 부곡온천은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됐다. 유명한 숙박시설로 부곡하와이가 있다. 부곡온천의 수온은 50~75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42~43도로 낮춰서 사용하고 있다.

온천수에 달걀을 담가두면 금방 익어 삶은 계란 빨리 먹기 대회도 열린다. 2013년 10월 '부곡온천 발견 40주년 기념 및 제20회 부곡온천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됐다.

지리산에서 즐기는 명품온천

온천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전남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전남 구례의 지리산온천은 전남에서 가장 수량이 풍부하며, 100% 천연 게르마늄 온천수가 나는 곳이다.

이밖에 전남 영광의 해수온천은 지하 600m 심층 천연암반에서 끌어올린 천연암반 나트륨 온천을 사용하고 있다. 해수 온천 주변의 자연경관은 매우 수려하다. 칠산 앞바다, 백수해안도로를 구경하며 느긋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참고로 백수해안도로는 '2011년 대한민국 경관 대상'을 받았다. **우**

글 김미화

사진 지리산온천랜드, 부곡온천



온천수족욕

온천수에 삶은 계란 먹기대회

전국 향토문화공모전 대상 수상작

석각 명문_(石刻 銘文)으로 남은 산음지역_(山陰地域)의 우암_(尤庵)과 후손_(後孫)의 수적_(手迹)

국내 유일의 향토사 학술연구 공모전인 전국향토문화공모전이 올해로 28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많은 향토사학자와 연구자들이 참가해 새로운 주장들을 쏟아냈다. 그 가운데 최고 논문으로 권유현 산청문화원 연구위원 (전 산청 덕산초등학교장)의 '석각 명문으로 남은 산음지역의 우암과 후손의 수적'이 대상을 거머쥐었다. 대상작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경남 산청(山淸) 지역은 예부터 '선비의 고장'으로 널리 이름난 곳이다. 목화씨를 들여와 의생활(衣生活)의 혁명을 가져온 삼우당(三憂堂) 문익점(文益漸), 고려 말기 두문동(杜門洞) 72현 중 한 분으로 불사이군(不事二君)의 매운 충절(忠節)을 실천한 농은(農隱) 민안부(閔安富),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쌍벽을 이루며 영남 우도의 사림(士林)을 이끌어온 남명(南冥) 조식(曹植), 파리장서로 독립의지를 표출한 면우 곽종석(郭鍾錫), 근래 불교계의 대표적 선승(禪僧) 성철(性澈) 큰 스님 등 쟁쟁한 인물이 탄생하거나 만년을 보내며 후학을 길러낸 곳이다.

이러한 고장이다 보니 선비들이 남긴 족적(足跡)이 적지 않은데, 본고에서는 그 중 단단한 암면에 남긴 석각(石刻) 명문(銘文)에 주목했고 그 가운데서 우암(尤庵)과 그 후손들이 남긴 것에 초점(焦點)을 뒀다. 이것은 돌을 다듬어 세운 비(碑)나 갈(碣)이 아닌, 자연석에 약간의 가공(加工)을 하거나 아니면 글자만 새긴 각자(刻字)라도 역사 연구에 유용할 수

있다는 시각(視覺)을 보인 것이다. 또, 그것들은 저마다 어떤 내력(來歷)과 역사적 의의를 지닌 문화재(文化財)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산청군내 확인된 각자만 400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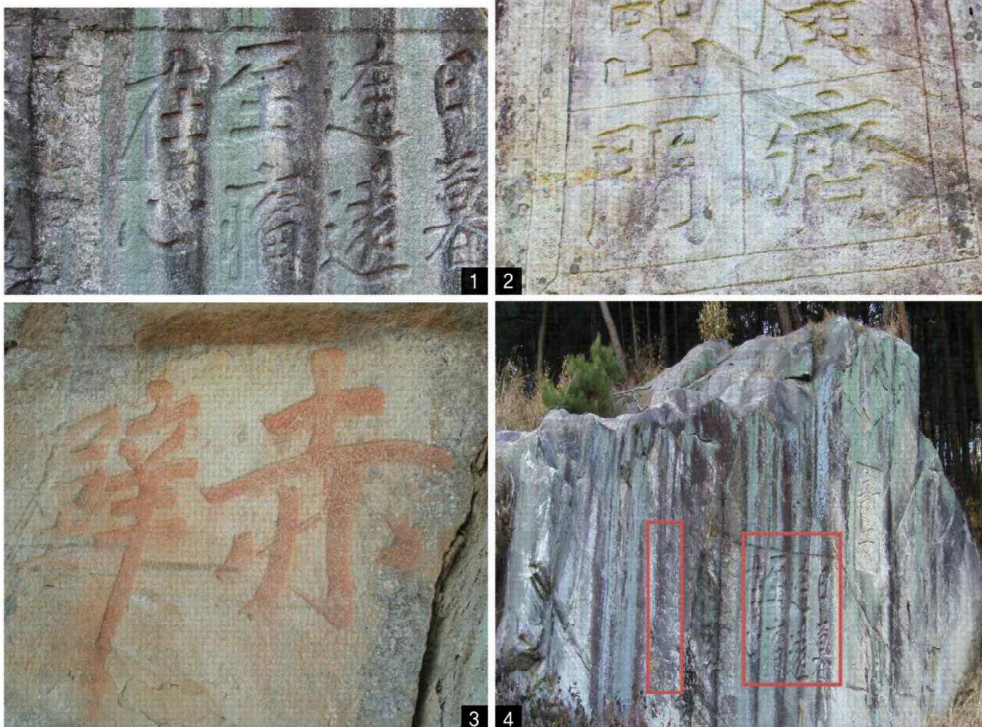
현재 산청군내 수 십 곳에서 발견된 각자는 필자가 확인한 것만 대략 400 여개가 된다. 소재(所在)가 파악된 지리산(智異山) 영역의 것까지 포함하면 500여 개가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 새긴 시기를 보면 대부분이 조선 중기 이후의 석각이지만 고려 성종 때 새긴 광제암(廣濟岩)의 각자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한 고문헌에도 언급되어 있는 바 천년이 넘는다.

그런데, 당시에 석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은 주로 학식을 갖춘 선비나 학자들로 지식인에 속하는 부류(部類)였다. 향토(鄕土)의 재지사족(在地士族)이 많고 전국에 널리 알려진 저명인사(著名人士)도 적지 않다. 또, 이곳에서 벼슬을 한 인사

들도 여러 곳에 석각을 남기고 있다.

이런 각자 중 필자의 연구에서는 우암(尤庵)과 그 후손(後孫)들이 남긴 수적(手迹)에 한정해 살펴보았다. 그의 자취에 대해 관심을 쏟는 까닭은 인조반정 이후 영남(嶺南) 우도(右道) 사림(士林)이 거의 남명(南冥) 문인(門人)들로서 남인(南人) 일색(一色)이었음에도 노론(西人, 老論)의 정신적 지주라 할 수 있는 그의 수서(手書)가 요지(要地)에 남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가 생전 은 물론 사후에도 조선 말기까지 중앙 정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는 점, 그러면서도 이쪽과는 별다른 학연(學緣)이나 지연(地

- 1 각자 '日暮途遠至痛在心'
- 2 각자 '광제암문'
- 3 鏡湖江邊 적벽산 斷崖의 각자 '赤壁'
- 4 왼쪽 각자 '來歷', 오른쪽 각자 '八大字', 오른쪽 위 각자 '新安'



緣)이 없는 외지(外地) 인물이라는 것도 시선을 끄는 점이다. 그가 남긴 각자는 여타 각자와 비교해 규모가 크고 모두 산청의 명구(名區)라 하는 적벽(赤壁)과 그 주변에 있으며 후손들이 남긴 수적이 함께 발견되는 점에서 특이한 경우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이곳 산음(山陰, 곧 山淸)에 그의 글씨가 암각(岩刻)으로 새겨진 과정 및 그 후손들이 각자를 남기게 된 연유(緣由)나 경위(經緯)를 밝혀 보고자 했다. 아울러 이들 각자의 문화재적인 가치를 알려 보존과 더불어 지역의 명소가 가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내외(內外) 인사들의 관심을 제고하려 했다.

우암과 그 후손들의 각자들

우암의 글씨가 석각으로 남은 곳은 이곳 신안정사(新安精舍) 경내(境內)의 암벽(岩壁)과 경호강(鏡湖江)에 맞닿은 적벽산(赤壁山) 단애(斷崖)- 적벽(赤壁) 등 두 곳이다. 목각자(木刻字) 한 점이 봉산서원(鳳山書院)에 있다. 또, 환아정(換鵝亭) 기문(記文)이 그의 글로 근세까지 남아 있었는데 1950년 3월 화재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의 후손 성담(性潭), 연재(淵齋), 심석(心石)이 남긴 각자와 편액(扁額), 기문(記文)이 신안정사, 적벽, 광제암문, 쌍계대(雙溪臺) 등에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우암이 평생 존모한 주자(朱子), 숭정제(崇禎帝)와 관련된 각자가 함께 눈에 띈다.

1682년 우암의 수필(手筆)이 이곳 명구로 인식되는 적벽에 새겨지며 이후 그의 유상(遺像)이 신안정사 영당(影堂)에 모셔지고 석채례(釋菜禮)까지 행해진다. 또, 잇달아 그의 후손들이 명사(名士)로 초청을 받고 방문해 여러 곳에 자취를 남겨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우암은 사사(賜死)된 얼마 후 복권(復權)되었고, 문집 ‘尤庵集’이 1717년에 왕명으로 간행됐으며 1787년 그의 글을 망라한 송자대전(宋子대전)이 간행된다. 이는 노론의 집권이 확고해진 한 증표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쪽 노론계 인사들의 향촌에 대한 영향력은 커졌고 우암의 후손들도 이들을 중심으로 별다른 저항(抵抗) 없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또, 연재나 심석은 학자로서 전국적인 명망이 있었고, 독립운동에 투신함으로써 외세배척과 배일독립을 주장하는 사림(士林)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들이 본 지역 여

러 곳에 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근거가 된 듯하다.

노론의 거두로 남인 세상에서 자취 남겨

우암은 노론(老論)의 정신적 지주였고,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우리 역사상 중요한 탐구 대상 인물로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연구도 부단히 이뤄지고 관련 책자도 적지 않게 발행된 줄로 안다.

그런 인물이 이곳 산음지역에 - 남인(南人)이 다수였던 당시 - 그것도 지역 명구(名區) 적벽에 자취를 남기고 있다. 상식적인 판단을 따른다면 그의 수필(手筆)이 적지(敵地)라 할 이곳에 남을 수 없다. 남겼더라도 즉시 흔적도 없이 파괴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의 수적(手迹)이 네 군데나 있었고, 근세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훼손을 당하지 않았었다. 더구나 우암의 후손들이 이곳을 잇달아 방문해 크게 환대를 받고 제자를 두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당쟁이 격화(激化)되면서 생사가 갈리기도 한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일은 당연히 의문을 갖게 만든다.

그러나 이런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할 정도로 연구된 바가 없다. 다만, 몇 편의 논문과 이 지역에서 발간된 족보(族譜) 기록을 근거로 이 지역에도 상당한 수의 노론계 인사들이 존재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수적(數的)으로는 남인(南人)들보다 적었지만 이들은 중앙의 노론계 인사들과 쉽 없이 교류(交流)했고, 경제력과 인문적 역량으로 지역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암과 그 후손의 자취가 온전하게 남아 있는 까닭이 아닌가 한다.

적벽 각자 위치 아는 사람 손가락 꼽을 정도

역사상 비중이 큰 인물의 자취를 찾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은 역사 연구의 본령(本領)이자 역사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역사는 인간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 발전하는 것이며 각 시대 인간 집단의 에너지를 결집(結集)시켜 방향을 선도하거나 이끌어간 위인, 지도자에 의해 특유의 색채(色彩)를 띠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들이 역사, 문학, 철학, 심리학 등 인문학(人文學)의 주요한 탐구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산음 지역은 우리 역사의 굵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다수 탄생하고 거주한 곳으로 영남 우도 지역에서 인재의 산실로 자처(自處)하는 곳이다. 그런 만큼 곳곳에 유명 인물들이 남긴 자취가 적지 않다. 그런 인재들을 양성해낸 향교와 서원, 후손들이 향사(享祀)를 위해 이룩한 재사(齋舍), 유적지, 기념물, 문집 등이 가는 곳마다 산재해 있다.

이 지역에 남아 있는 석각명문(石刻銘文)도 모두가 크건 작건 각 시대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유적들이다. 그 중에는 남명(南冥), 덕계(德溪), 명암(明庵), 연재(淵齋), 심석재(心石齋) 같은 큰 인물과 관련이 깊은 각자들도 다수 현존(現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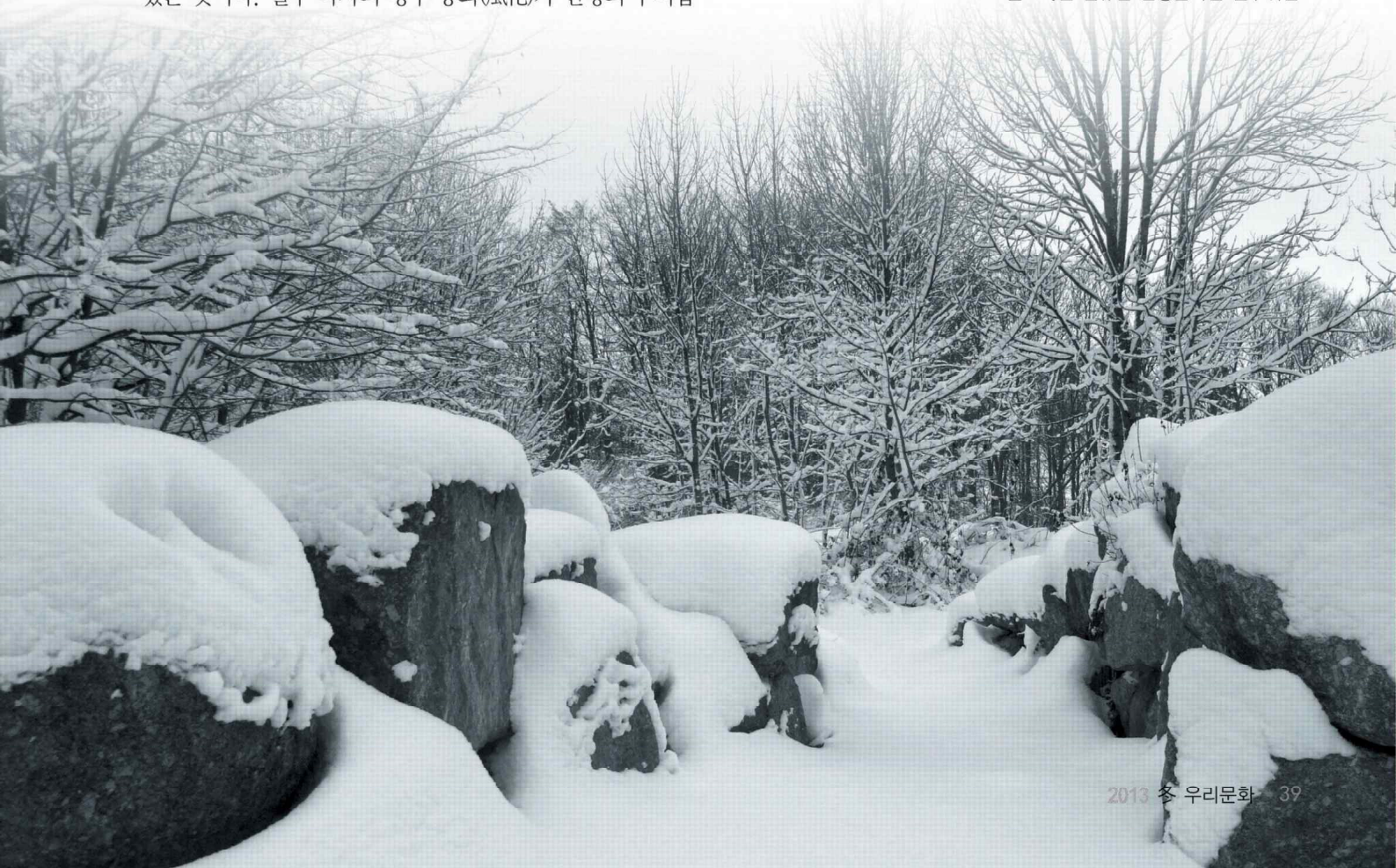
그럼에도 이들이 남긴 각자들과 본고에서 적시(摘示)한 우암의 필적 등 어느 것 하나에도 충분한 연구와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일례(一例)로, 적벽(赤壁) 각자의 경우 그 각자의 존재 여부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아도 그 위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손가락을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각자(刻字)가 역사-향토사-를 보완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는 귀중한 문화재임에도 관민(官民) 어느 쪽도 관심을 두지 않아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각자의 경우 풍화(風化)가 진행되어 시급

한 보호조치를 요하는 실정이다.

이곳 적벽(赤壁)은 조선말(朝鮮末)까지만 해도 소식(蘇軾, 蘇東坡)의 적벽부(赤壁賦) 내용을 재현(再現)하는 적벽범주(赤壁泛舟)로 전국적인 명소였다. 당시 적벽 아래를 흘러내리는 신안강에서 뱃놀이를 하던 모습이 그림으로도 남아 있다. 그곳 높이 약 40m나 되는 단애 상에 우암의 각자가 남아 있고 그 아래에도 여러 각자들이 새겨져 있다. 이들 석각(石刻)과 강안(江岸)에 펼쳐지는 단애(斷崖)의 수려한 풍광(風光), 달밤의 뱃놀이 즉 범주(泛舟)는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법하다.

이와 함께 군내의 석각을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연구를 통해 가치가 인정된 것은 지정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고려시대의 각자 광제암문, 우암(尤庵)이 남긴 일모도원(日暮途遠) 등 8대자(大字)와 적벽(赤壁)각자, 1862년 발생한 단성민란(丹城民亂) 관련 마에비(磨崖碑) 등 명문(銘文)이 그런 것들이다. 이런 석각은 주위의 수려한 경관과 함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자원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글·사진 권유현 산청문화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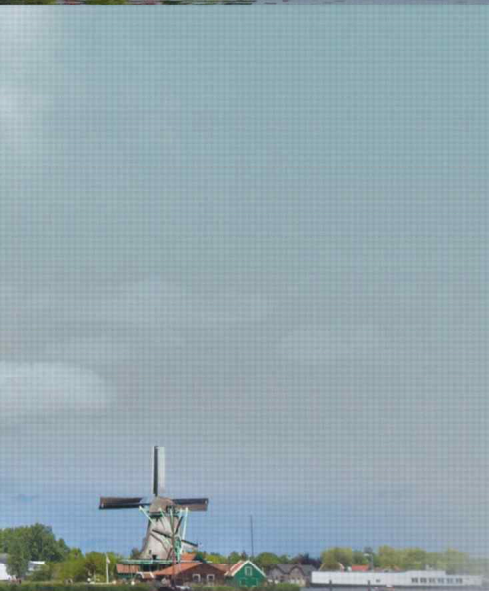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도시 암스테르담

동서양과 고금을 망라하는 세계 물류와 문화를 포용해온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파리, 런던, 로마와 함께 유럽을 대표하는 4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힌다.

17세기부터 무역항으로 세계 교역과 물류의 중심지, 조선 건설 등 신흥공업의 중심지로 발전한 암스테르담은 화가 고흐와 렘브란트, 사상가 스피노자를 배출한 곳으로, 1987년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된 문화중심지이기도 하다.





느림의 미학이 깃든 문화도시

암스테르담의 풍경 중 가장 독특한 것은 캐널링(canal ring)으로 불리는 운하이다. 암스테르담은 원래 한적한 마을이었다가, 12세기경 암스텔 강 하구에 독을 쌓아 도시가 건설되었는데, 암스테르담이라는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이후 암스테르담은 운하를 중심으로 발달했고, 4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운하 위로는 여전히 뱃길이 이어져 도시의 대동맥 역할을 한다. 암스테르담의 운하들은 201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암스테르담은 자전거의 도시이기도 하다. 암스테르담의 자전거 이용률은 전 유럽지역 1위이다. 도시전역에 400km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고, 시민의 85%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50%가 자전거를 매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교통 시스템도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 구도심을 가로질러 운하가 흐르고, 그 주위로 자전거길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승용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은 트램이 달린다. 이렇듯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된 문화는 운하와 다리, 옛 건축물을 고스란히 지켜내면서도 거리의 소통을 돕는 결과를 가져왔다.

차별화된 도시브랜딩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 앞 뮤지엄 광장에는 커다란 로고가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I amsterdam', 내가 바로 암스테르담이다! '내가 밟고 있는 도시, 내가 머무는 바로 이곳이 암스테르담이며 나 자신의 욕망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도시'라는 것. 이는 도시 이름과 맞물려 암스테르담을 알리는 대표적인 조형물이 되었다.

유럽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암스테르담은 도시쇠퇴와 늙은 지역 이미지에서 벗어날 돌파구가 필요했다. 21세기 들어서도 '바이킹 후예의 도시', '섹스와 마약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사회통합의 문제에 부딪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패션, 디자인, 관광 등 이른바 '창조산업' 중심으로 도시경제구조를 바꾸고, 세계도시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 도시 브랜딩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도시 브랜딩 전략은 도시 판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시민들에게 불어넣어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2년에 걸친 준비와 검토를 거쳐 2004년 'I amsterdam' 브랜드를 발표했으며, 이 브랜드를 실현하고 판촉하는 조직은 민관협력조직인 'Amsterdam Partners'이다. '암스테르담의 사람'이라는 도시 브랜딩의 중심은 암스테르담 시민은 물론 방문하고 머물면 누구든 창의적이고 자유로우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계시민이 됨을 강조한다.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공장

베스터가스파브릭(Westergasfabriek) 문화공원은 암스테르담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다. '베스터 가스공장'이라는 뜻의 이 문화공간은 원래 석탄으로 가스를 만드는 발전소였지만 가동을 멈추고 1992년 이전하면서 시는 주민 투표를 거쳐 이곳을 문화공원으로 만들었다. 이후 10년에 걸쳐 공장의 각종 건물들은 수리 보수를 통해 새로운 쓰임새를 얻게 되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오래된 건물

공장의 보일러실은 유럽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하는 극장, 작업 관측소는 '에스프레소 공장'이라는 이름의 커피숍이 됐다. 가스탱크는 오페라, 파티, 콘서트, 패션쇼 등 각종 대규모 행사를 여는 복합공간이 됐다.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축제인 홀랜드 페스티벌도 이 공간을 활용한다. 지난달에는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가스탱크 내부를 실내악 연주홀로 변형시키는 이벤트가 열리기도 했다. 흰색의 인조섬유 막이 공간 내부를 소용돌이치듯 휘감은 가운데 일주일 내내 바흐의 음악이 연주됐다.

문화와 상업이 융합시킨 도심형 공원이라는 점이 이곳의 또 다른 특징이다. 문화공원 내부에는 3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갤러리, 공연장, 예술교육센터 등 문화시설뿐 아니라 카페와 레스토랑, 바, 영화관 등 상업시설도 있고, 그래픽디자인 업체와 게임회사, TV 스튜디오, 유치원 등도 있다. 짧은층의 발길이 잦을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문화공간이 '고상한 취향을 가진 소수가 아니라 전 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며, 복합적인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운영원칙이 우선한다.

문화재에서 살아있는 문화센터로 변신

암스테르담 도심의 고색창연한 건물 내에 투명 유리벽과 철로 사방 벽과 천장을 꾸민 이색 콘서트홀이 있다. 1903년에 건립되어 1백년이 넘는 옛 증권 거래소 건물인 보이어 반 베르라그(Beurs van Berlage, 이하 BvB;)내의 '옥수수홀'이다. 원래 자리에 있던 옥수수 경매장의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지만 '유리 음악당'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다. 1990년 2백30석 규모로 개관, 네덜란드 필하모닉 단원으로 구성된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연습실 겸 무대로 사용 중이기도 하다.

BvB에서 가장 넓은 메인 홀은 구리와 커피 목화 거래가 이뤄지던 곳으로 대형 파티 등 각종 이벤트가 열린다. 지하의 귀중품 보관소는 2001년 공예품과 건축 디자인 전시장으로 탈바꿈했다. BvB는 60년 해체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건물을 잘 보존해 오늘날 시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문화공간,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손꼽히고 있다.

세계적인 문화기관, 드 아펠 아트센터

암스테르담은 열린 마음과 기업가 정신이 어우러진 도시로 불린다. 과감하게 새것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문화를 융합시키는 네덜란드 특유의 개방적 사고는 문화도시전략에도 적용됐다. 문화도시의 목표는 박물관이나 음악당 같은 상징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시민들의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재를 발굴하고 기르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암스테르담에는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문화기관이 있다. 드 아펠 아트센터(de Appel Art Centre)는 1975년 설립 이래, 전시, 리서치, 출판 및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는 국제적인 아트플랫폼이다. 1994년부터 젊고 유망한 큐레이터들에게 보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드 아펠 큐레이토리얼 프로그램(Curatorial Programme of Arts Centre de Appel, 일명 CP)을 진행하고 있다. 국적에 상관없이 전 세계 큐레이터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 프로

그램은 1년에 6명을 선발해 8개월간의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참가자들은 세계적인 인문학자, 교수들의 강의와 작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문적인 경력을 쌓아 나간다.

그러나 어떤 것을 '배운다' 또는 '가르친다'고 하기 보다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비엔날레 디렉터들이나 미술관 큐레이터들이 직접 나와 강의 및 토론을 이끌어가며 '민들이 간다'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적에 상관없이 이렇게 투자하고 경력을 만들어주면서 드 아펠은 세계 큐레이터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

드 아펠에는 좋은 작가들과 좋은 큐레이터들이 모이고, 이들의 만남이 계속 생겨나, 이들의 국제적인 활동은 자연스럽게 국제 미술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암스테르담은 다양한 예술 실험이 융성하는 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

글 강신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참고자료 한국일보 문화부(2011), 소프트시티, 생각의나무

암스테르담 운하



자연을 품은 **한옥!** 따지고 보면 과학

계속되는 한류 열풍과 웰빙 바람으로 한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웰빙과 힐링, 복고가 유행어로 떠오르면서 전국의 고택을 찾아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 더욱이 한옥에 살고 싶어하는 이들이 부쩍 많아져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도심 속 여유로운 공간을 형성시키고 있는 한옥이 지니고 있는 멋과 의미, 명칭에 대해 알아보자.





1, 2 양동민속정보화마을 3 남산골 한옥마을에 있는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

한옥은 양옥과 대칭해 말하면 ‘한국의 전통가옥’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조선시대의 양반가옥이라 알고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주거공간이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생활문화와 자연환경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옥이라 할 수 있다.

보통 한옥은 뒤에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강이 흐르는 배산임수가 최고다. 또한 겨울에는 서북풍, 여름에는 남동풍의 바람이 불고 아침에 따스한 햇빛이 방안까지 들어오면 그야말로 자연속의 주거공간으로 그만이다.

온도를 조절해주는 창호지의 묘미

그렇다면 한옥의 구체적 특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한옥을 얘기할 때 창호지를 빼놓을 수는 없다. 창호지는 햇빛이 잘 스며드는 기능이 있어 방안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주기도 하지만 숨을 쉬는 역할을 해 안과 밖의 공기를 교류케 함으로써 언제나 신선함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집안에 어깨를 맞대고 있거나 마주보는 안채 바깥채 사랑채 등에는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바람길이를 만들어져 집 안에는 항상 시원한 바람이 오간다. 시원한 바람으로 무더운 여름을 견디고, 따스한 햇빛으로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것이다. 한옥은 또한 문을 하나씩 열고 닫을 때마다 다양한 느낌을 준다. 집안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방과 방 사이를 막는 벽채를 열어 넓게 사용했으며 공간을 구분하거나 바람이 많이 불

때에는 병풍을 사용해 바람을 차단했다.

특히, 한옥의 외곽선은 포물선처럼 자연스럽고 유연하다. 초가의 선은 뒷산의 모양을 닮았고 기왓집의 선은 새끼줄의 양 끝을 잡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것처럼 경직되지도 않으면서 처지지도 않은 건축미를 표현했다.

한옥의 담은 집집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높지 않다. 사람의 키보다 조금 높게 만든 담들을 볼 수 있다. 이는 억압적이지 않은 느낌을 담아 한옥 방문자들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준다. 또한 한옥의 담은 집과 같은 재질인 진흙과 돌을 이용해서 만들어 조화롭다.

자연과의 조화 속에 숨은 멋과 깊이

한옥은 양옥과 달리 돌출스러움 보다는 조화스러움이 먼저다. 주변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며 대자연의 하나로 자리를 잡는다. 덕분에 한옥은 바람과 햇빛 등 자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옥의 구조를 들여다 보면 자유스러우면서도 엄격한 질서의 미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어떤 건축물보다 과학적이고 감각적이다. 그러면서도 한옥은 뭇지 모를 은은한 멋과 깊이와 고풍스러움이 배어난다. 그렇지만 한옥은 하룻밤 지내기에 편치만은 않다. 에어컨이나 난방기에 익숙해 있는 도시인이 기거하기에는 뭇가 보자라고 불만스러운 구석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인위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꾸밈 없이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허락

된 집일지 모른다. 이처럼 우리의 한옥에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고 융화하려는 본질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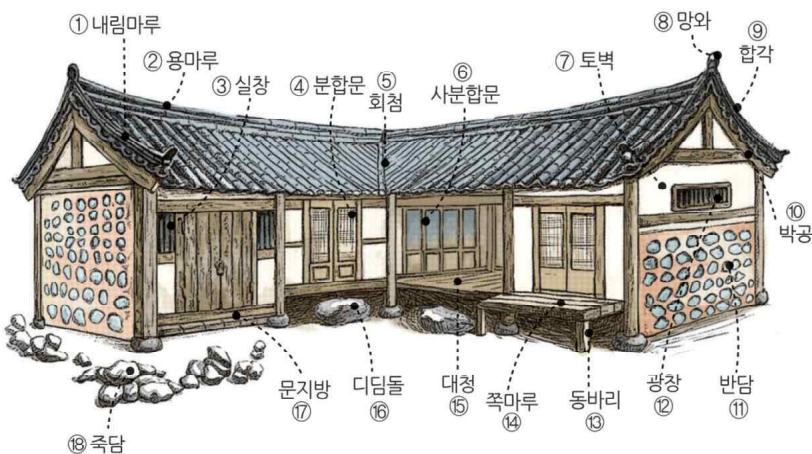
겉으로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한옥은 절대 단순하지 않다. 한옥에 사는 진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옥의 구조와 특징을 충분히 알고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 한옥의 구조

- ① 내림마루 지붕면에 따라 경사져 내린 마루를 통틀어 일컫는다.
- ② 용마루 건물의 지붕 중앙에 있는 주된 마루로, 한식 가옥에서 중심을 이룬다.
- ③ 실창 인방(引枋)이나 문틀에 실대를 나란히 세워 낸 창. 실창문이나 전창(箭窓)이라고도 부른다.
- ④ 분합문 한옥의 대청 앞쪽 전체에 드리는 긴 창살문
- ⑤ 화첩 처마가 'ㄱ' 자 모양으로 꺾이어 굽은 곳.
- ⑥ 사분합문 문짝이 넷으로 되어 열리고 닫히는 문.
- ⑦ 토벽 종이를 바르지 아니해 흙이 드러나 있는 벽
- ⑧ 망와 용마루 끝에 세우는 암막새
- ⑨ 합각 지붕 위 양옆에 박공으로 'A' 자꼴을 이룬 각.
- ⑩ 박공 맞배지붕의 측면에 인자형으로 붙인 건축 부재(部材).
- ⑪ 반담 낮게 쌓은 담.
- ⑫ 광창 어두운 실내를 밝혀주기 위해 설치하는 창. 부엌이나 광·고방(庫房)·헛간·다락 등의 벽에 주로 설치한다.
- ⑬ 동바리 비계의 기둥이나 지보공의 지주의 밑에 설치해 비계기둥 또는 지주의 사오 간격을 유지하고, 기둥 밑의 움직임을 방지하는 목적의 수평 연결재
- ⑭ 쪽마루 평주(平柱) 밖으로 덧달아 낸 마루. 마루의 한쪽은 평주(平柱)에 의존하지만 바깥쪽은 따로 기단에 짚은 동바리를 받쳐 마루를 놓는다.
- ⑮ 대청 한옥에서, 몸체의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
- ⑯ 디딤돌 미루 아래 같은 데에 놓아서 디디고 오르내릴 수 있게 한 돌.
- ⑰ 문지방 출입문 밑의 두 문설주 사이에 마루보다 조금 높게 가로로 낸 나무.
- ⑱ 죽담 막돌에 흙을 섞어서 쌓은 돌담.



- 1 남산골 한옥마을의 옥인동 윤씨 가옥
- 2 남산골 한옥마을의 관훈동 민씨 가옥
- 3 남산골 한옥마을의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
- 4 남산골 한옥마을의 서울천전타임캡슐
- 5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공예관 입구 모습



지역 따라 한옥 따라

한옥은 지역 곳곳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는 북촌한옥마을, 남산골 한옥마을이 있다. 조선 시대에 조성된 상류층 주거지로서 1920년대까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던 북촌은 1930년대에 서울의 행정경계가 확장되면서 건축물도 근대적으로 변형됐다.

대청에 유리문을 달고, 처마에 잇대어 함석 채를 다는 등 신재료를 이용한 북촌의 한옥은 전통적인 한옥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사회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도시 가옥으로 변화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서울 가까이에 있는 북촌, 남산골 한옥마을

경복궁 북쪽의 가회동, 사간동, 소격동 일대를 일컫는 북촌 한옥마을은 옛 한옥 모습을 갖춘 집이 많아 관광지화 되어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한편 서울의 상징인 남산은 옛 이름을 목멱산이라고 했으며, 도성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남산으로 불리어 왔다. 이곳에는 남산골 한옥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도심에서 4계절의 변화를 즐길 수 있는 이곳에는 서울시내에 산재해 있던 옥인동 윤씨 가옥, 제기동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 관훈동 민씨 가옥,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가옥,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 등 서울시 민속자료 한옥 5채가 이전, 복원되어 있는데다 이 한옥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분성격에 걸맞은 가구 등도 배치하고 있어 선조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 또한 전통공예관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기능보유자들의 작품과 관광상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한옥 너머에는 서울천 년타임캡슐이 묻어져 있어 과거와 미래가 대조를 이룬다.

멋스러운 전주 한옥마을, 유서 깊은 양동마을

또한 대표적인 한옥마을로 손꼽히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은 국내 최대의 한옥촌으로 전주시 완산구 교동(校洞)·풍남동(豊南洞) 일대 7만 6,320평에 700여 채의 전통 한옥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옥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오목대에 올라 한옥마을 전경을 굽어보면 회색의 빌딩과 적산 가옥이 둘러싼 가운데에 팔각지붕에 검은 기와가 멋스러운 한옥마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1984년 12월 20일 마을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제189호)로 지정된 경주 양동마을은 경주시 북쪽 설창산에 둘러싸여 있는 경주손씨와 여강이씨 종가가 500여년 동안 전통을 잇는 유서 깊은 반촌 마을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큰 집들을 잘 보존하고 있는 양동마을은 무첨당(보물 제411호), 향단(보물 제412호), 관가정(보물 제442호)를 비롯해 많은 옛 건물들이 귀중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산계곡을 따라 펼쳐진 경관, 자연과 어울려 오랜 전통을 간직한 집들, 양반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들과 유교사상, 관습들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 마을로 평가받고 있다. 

글 김미화

사진제공 양동민속정보화마을, 김미화 일러스트 김나래

이만구 · 고창식 · 김종 등 전 · 현직 문화원장 3명 훈장 수훈 “훈장 받은 문화원장들 달라도 뭐가 달라”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이 지난 10월 19일 '2013 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옥관을 수훈했다.

이만구 포천문화원장과 고창식 평창문화원장이 지난 10월19일 서울 봉래동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2013 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옥관을 수훈했다. 또 김종 전(前)광주문화원연합회장은 화관을 수훈했다. 수훈자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자타공인 포천문화통...

이만구 포천문화원장

어린이~어르신, 토박이~외국인 함께
향유할 문화콘텐츠 일군 독심 인정받아

2013년 옥관 문화훈장을 받은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포천 군청 근무시절 문화공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문화원 설립(1986년)의 산파역할을 했다.

1998년 공직에서 명예롭게 물러난 뒤에도 문화원 일에 적극 관여, 2002년 문화원 부원장을 거쳐 2004년에는 포천문화원장에 취임했다. 내년에 취임 10년을 맞는다.

23개 과정의 문화학교를 운영, 1100여 포천시민들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반월문화제와 전국 휘호대회, 전국 한시백일장, 학술연구발표회 등으로 낙후된 지역문화 사업을 넓히고 복돋웠다.

또 향토사료총람과 포천의 지명유래집 발간 등 지역 향토사 연구발전에도 애썼다. 임기 내내 낡은 문화원 시설을 안타까워하다 지난 2013년 3월 드디어 새 문화원 부지에서 첫 삽을 떴다. 그런가하면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지자체 예산 확보 노력도 남달랐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2009년 지역문화 창달 공로를 인정해 이 원장에게 대한민국문화원상을 수상했다. 이원장의

공덕이 장관 귀에까지 전달되면서 2012년에는 지역문화발전유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까지 받았다.

선생님들을 설득해 포천 학생들(14개 학교 560여명)에게 한해 13차례 문화유적 답사를 시켰다. 어려운 이웃들도 문화소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문화 바우처 사업'을 벌이고, 빠듯한 문화원 예산이지만 다문화가정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통혼례를 치러줬다. 포천을 찾는 여행객과 외국인들에게는 연간 14차례 '문화유적답사 시티투어'를 실시, 유적답사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어린이에서 어르신, 토박이에서 외국인까지 모두 향유할 포천문화콘텐츠를 일군 '포천문화통'이란 이 원장에 대한 평가는 과장되지 않아 보인다.

“원형 살리되 오늘에 접목”...

고창식 평창문화원장

화전민 음식 스토리텔링

차별적 문화콘텐츠로...2018 동계올림픽까지

“개량한복 입고 관광객 맞으면 어떨까요? 원형은 보존하되 오늘의 문화를 입혀야 합니다.”

지난 11월12일 강원도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3 제2차 평창동계올림픽포럼'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고창식 평창문화원장이 한 말이다.

이날 포럼에서 고 원장은 “알펜시아 방문객들에게 소감을 물어보면 외국에 온 느낌이라고 한다”면서 이국적 풍광에 전통과 실용이 접목한 문화콘텐츠를 강조했다.

지난 10월19일 정부가 수상하는 영예의 옥관 문화훈장을 받



2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고창식 평창문화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옥관 문화훈장 수훈자들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3 김종 前광주문화원연합회장(왼쪽에서 두번째) 등 문화훈장 하관 수훈자 6명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4 다문화 어린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이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은 고 원장은 올해 상복(賞福)이 남다르다. 연초 '도사리 자연밥상'이라는 생활문화전승 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은 것이 옥관 문화훈장의 복선인 셈이다.

산나물 등 지역에서 흔한 산촌(山村)음식들에 이야기를 입혀 〈산촌음식에서 문화를 찾다〉라는 '화전민 음식문화 콘텐츠'로 집대성했다. '자연은 밥상이다'라는 문구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문화 마케팅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발견한 고 원장은 아예 이 도사리 마을 자체를 체험관광지로 부상시켜 지역주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고 원장이 평창문화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98년 전통문화보존위원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부터. 그 해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장 표창을 받고 이듬해 대한민국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2006년 평창문화원장에 취임한 이래 '조선왕조 실록 왕실의례 제자리 찾기 운동' 등 굵직한 역할을 해왔다. 남한강 발원지인 오대산 우통수(于筒水)에 이야기를 입혀 인근 8개 읍면을 다도(茶道)의 고장으로 바꾼 점도 탁월한 문화마케팅 감각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라져가는 평창아라리를 발굴해 집대성하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도 등재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고 원장은 백두대간의 일부로 자연과 인간의 오묘한 조화를 보여주는 오대산을 닮았다.

“한국 시화의 뚜렷한 궤적”...

김종 前 광주문화원연합회장

직업과 장르의 틈을 메우는 시인겸 화가
열정 간직한 문화계 스승 역할

2013년 화관 문화훈장을 받은 김종 前 광주문화원연합회장

은 문인이자 화가다.

대학 입학 이듬해 〈월간문학〉 제 8회 신인상을 거머쥐었고, 대학원생 시절이던 1976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됐다. 그해 광주문화원 회원이 돼 문화원과 인연을 맺었고, 2001년부터 9년간 광주 서구문화원장을 맡아 일했다. 지방 문화원장 임기를 마치자마자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를 맡아 지난 2013년 4월 퇴임 때까지 헌신했다.

한국문학상과 영랑문학, 최치원문학상, 백제문학상 등 37년간 받은 수 많은 상은 열거하기도 어렵다. 대학교수와 광주 예총 이사, 한국문인협회 이사, 국제펜클럽 이사 등 그가 역임한 직책만 뺄뺄이 열거해도 A4용지 세장으로 부족하다.

전국의 갤러리에서 미술 개인전과 초대전, 단체전을 수십차례 열었던 이력은 문화예술계에서도 비범한 사례다.

문화원 운동을 통해 그의 결실들이 영글었다. 대중들과 만나기 위해 광주비엔날레나 각종 영화제, 연극, 가극, 지역문화제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목 좋은 광장에 시화를 내걸고 거리의 장삼이사들을 멈춰 세웠다. 문필과 미술작품을 전통음악에 접을 붙이고 학생들에게 좋은 음악을 독려하면서 장르를 넘나들었다.

지역사회와 정부, 동료 문인들과 예술가들이 의기투합해 자신의 궤적을 지역사회의 공간에 배치했다. 문인촌과 시(詩)가 있는 조형물, 유품전시관, 문인상징물, 옥필전시관 등이 그 공간들이다. 스물에 등단한 작가이자 화가는 10권의 시집과 14번의 개인전을 치르면서 이제 선배 문인, 후학을 가르치는 신성한 한국의 문화 선생님이 됐다. 🌻

글 이상현 사진제공 강민철

2013 문화원의 날 기념 ‘2013 대한민국 문화원상’ 시상

목포문화원 대상, 동작·정선·예산·창원문화원 우수상
지역내 문화소외 해소 노력...참여와 아이디어로 모범



대상을 수상하고 있는 이춘웅 목포문화원장

목포문화원이 ‘2013 대한민국 문화원상’ 2013년 10월 10일 (목) 청주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차지했다. 또 동작문화원과 정선문화원, 예산문화원, 창원문화원 등 4개 문화원이 나란히 우수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목호 등대마을 논골담길 등으로 유명한 동해문화원 등 13개 지역 문화원들이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문화 창달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영예의 대상 “목포는 문화적 항구!”

대상을 받은 목포문화원은 목포시 문화원지원조례를 제정, 지속가능한 문화원 운영의 초석인 재정안정화를 이룬 점이 눈에 띈다. 또 평소 운영해오던 어르신문화프로그램과 함께 노인일자리도 지속 추진한 점도 돋보인다. 소리 잘하는 어르신 30명을 모아 8년째 ‘실버남도소리공연’을 해오면서 공연 수입이 생기는 일자리를 창출, 유지해왔다.

목포 지역 대표적 서민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야외공연 등 각종 문화 활동을 벌였고,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해설가 등 고급 인적자원들로 하여금 지역역사문화아카데미를 이끌도록 도움을 이끌어낸 점도 모범으로 꼽혔다.

이처럼 목포문화원은 보여주는 문화 활동이 아닌 시민이 참여해 공감하는 문화 활동을 잘 조직하고 이끈 점이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시 청소년 문화센터와 시립도서관, 코레일 목포역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시민 문화 활동의 저변을 넓히는 한편 공간적 제약을 없애 일상적

인 문화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온 점은 높이 살만하다.

동작문화원

남녀노소 문화소외 없는 사랑방 일귀

우수상을 받은 동작문화원은 서울에서 인구밀도가 높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빈곤가구, 다문화가정 등 문화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동작구 지역에 입지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등 외부기관 초청공연 등을 통해 문화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이 돋보인다. 사육신묘역이 있는 ‘충절의 고장’ 답게, ‘사육신추모문화제’를 실시하는 한편 문화원 주최 오디션을 거쳐 자체 선발한 전통문화분야 전문예술인들을 양성, 동작문화학교 강사로 활동토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정선문화원

수준 높은 학술행사 눈길

우수상을 수상한 정선문화원은 지난 2012년 당시 상근 직원이 달랑 2명이었다. 재정 자립도도 다른 지역에 견줘 매우 낮았지만 푸념만하고 있지 않았다.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지역 내 모든 단체를 방문, 찬조와 재능기부, 참여 등을 어떻게든 끌어들이었다. 문화원 회원을 늘리기 위해 정선군수와 지방의회 등 지역 지도자들부터 찾아가 기어이 회원 가입신청서를 받아 냈다. 신라 선덕여왕이 정선군 고한읍 정암사에 세워 현재 보물 410호로 지정된 수마노탑, 유네스코에 등재



우수상을 수상한 문화원 관계자들이 오용원 한국문화원연합회장(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된 정선 아리랑 등과 관련된 수준 높은 학술행사가 특히 눈에 띈다.

예산문화원

추사 선생 따라 지구촌에 '붓 휘두르기'

우수상을 수상한 예산문화원은 한국의 대표 명필 문인 추사 김정희 선생이 나고 자라 고택과 묘가 있는 곳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휘호(揮毫)대회 등 일찌감치 서예 관련 문화행사를 발전시켜왔다. 여러 지역에서 휘호대회를 개최하지만, 국무총리상과 국회의장상 등 상격이 높은데다 전국에서 해마다 600여명이 대회에 참가해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손꼽힌다. 문자 메시지 한번이면 9629명이 즉각 반응하는 등 예산문화원 회원네트워크의 남다른 기동성, 제주 서귀포시나 해외 지방정부와의 국제교류에 공을 들이는 점도 눈에 띈다.

창원문화원

젊은 문화인 육성에 주력

우수상을 수상한 창원문화원은 주5일제 수업으로 주말 여가 시간이 늘어난 청소년, 선배세대와 달리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젊은 직장인 등 젊은 피에 주목하고 있다. 문화원 운영 투명성도 남다르다. 사업 및 운영경비는 항목별로 따로 통장을 만들어 인터넷과 카드로만 입출금 한다. 문화재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4개월 과정의 창원박물관대학은 벌써

43기 21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도예의 고장답게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 등을 방문해 한국의 도자기 문화가 일본에 전수된 귀적을 살펴보는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툭아보고 알리고 나누고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동해문화원이 운영하는 묵호 등대마을 논골담길에 '축제 및 문화행사' 부문에서, 창원문화원이 운영하는 창원박물관대학이 '인력양성 및 교육' 부문에서 각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재부문에서는 이종남 광주문화원 문화실장이, 외부협력부에서는 고양문화원이 추천한 김우규씨가 각각 수상자로 뽑혔다.

지역문화 창달 부문 '향토사 발굴 및 조사연구' 분야에서는 양양문화원과 원주문화원, 제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회가 각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같은 부문 '고유문화개발 및 보급' 분야에서는 문경문화원이 추천한 함수호 '전통연희단 하늘재' 대표, 거창단오제를 이끌어온 거창문화원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밖에 산청문화원과 청주문화원 소속 박명근 팀장이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부문에서 각각 수상했고,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 부문에서는 화순문화원 지영희 사무국장과 김천문화원이 각각 상을 받았다. 

글 이상현

사진제공 한국문화원연합회, 목포문화원, 예산문화원

국회에서 시를 만나다

제 11회 국회 시 낭송의 밤
지난 11월 14일 성황리 개최



- 1 오용원 한국문화원연합회장
- 2 강창희 국회의장
- 3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4 김남진 원로시인

대한민국 국회(사무총장 정진석)와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오용원)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후원하는 '제11회 국회 시 낭송의 밤' 행사가 11월 14일 (목)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공연연출가 표재순의 연출, 국악인 김성녀의 사회로 진행됐다. 국회에서는 김희성, 노영민, 도종환, 유기홍 의원이, 문단에서는 원로시인 김남조 시인을 비롯한

권용태, 이근배, 이길원, 권이영, 채바다 시인이 출연했으며,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동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등이 특별 출연해 자작시와 애송시를 낭송했다. 이와 함께 국립창극단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의 특별공연도 함께 펼쳐졌다.

특히 지역의 문화를 일구고 있는 한춘섭 성남문화원장과 정형택 영광문화원장이 무대에 올라 시낭송을 해 여의도의 가을 저녁을 시향으로 물들였다.

‘국회에서 시를 만나다’란 주제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인, 정부인사, 각계 저명인사들이 애송시를 함께 낭송함으로써 문화융성의 시대를 맞아 한국 정

치의 산실인 국회에서 시(詩)라는 아름다운 문학을 통해 화합의 국회,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문화 국회를 지향하는 의미의 행사로 치러졌다.

‘국회 시 낭송의 밤’은 국회의원 및 유명 시인과 함께 일반 국민을 초청, 문화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

글 김미화 사진제공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신임원장



대구문화원연합회
이원부 회장(2013. 10. 1/신임)

계명문화대학 유아교구 디자인과 교수(現)
남구문화원장(現)



청도문화원
박윤제 원장(2013. 10. 28/신임)

청도문화원 이사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회장 역임
청도 향토사학회장(現)
경북문화재전문위원(現)
한국국학진흥원 자문위원(現)



서귀포문화원
강명언 원장(2013. 9. 13/신임)

서귀포문화원 부원장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 위원
안덕농협 근무
「다이나믹 제주」 명예기자
대한산악연맹 제주도연맹부회장



연수문화원
조복순 원장(2013. 10. 31/신임)

인천녹색연합 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연구기획회의 회장
유네스코인천현의회운영이사
홍익경제연구소 연구원
연수문화원 이사, 감사 역임



하남문화원
유병기 원장(2013. 09.30/신임)

하남 한성백제 연구회장
하남시 산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하남시 남한고등학교 장학회 이사장
하남문화원 5대 감사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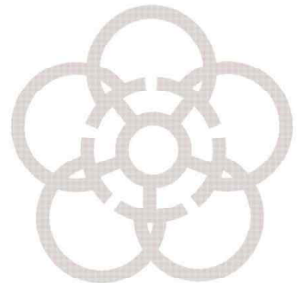
동두천문화원
김춘경 원장(2013. 11. 1/신임)

동두천문화원 부원장
동두천중고등학교 총동문회장
동두천시 축구 60FC단장(現)
동두천농협 영농회장 협의회장(現)
강릉 김씨 동두천종중회장(現)



울산남구문화원
김호언 원장(2013. 10. 26/신임)

울산사진작가협회 회장 역임
울산예총 수석부회장 역임
남구문화원 부원장
울산고래재단 이사(現)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現)



지방문화원 행사소식

서울

성북문화원

'성북문화' 발간(창간호)/2013. 12.
'동문 밖 능말 이야기' 발간/ 2013. 12.

강북문화원

제11회 3·1독립운동 재현행사/2014. 3. 1./우이동 봉황각

마포문화원

공민왕사당제 봉행 및 광흥당 개청식/2013. 11. 22. 10:00/공민왕 사당

양천문화원

양천문화원 문화대학 종합예술제/2013. 11. 19. 14:00~/양천문화회 관 대극장
한마음 송년음악회/2013. 12. 18. 19:00~/양천문화회관 대극장

동작문화원

동작문화원 향토사연구소 학술세미나/2013. 11. 14. 15:00/동작문화 복지센터 소강당
특별강연회 'e시대 여성들의 아우성' /2013. 11. 19. 26 15:00/동작문화 복지센터 대강당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발표회/2013. 11. 29. 19:00/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
동작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2013. 12. 12. 19:00/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
동작문화학교 수강생작품 전시 및 발표회/2013.12. 9.~ 20./동작문화 복지센터 대강당

관악문화원

2013 관악문화페스티벌/2013. 12. 12. 14:00/관악문화관 2층 대공연장

강동문화원

제12기 강동문화대학 수료식/2013. 12. 4. 14:00~16:30/강동구민회 관 1층 소회의실
색소폰연주단 수료식/2013. 12. 3. 15:30~16:00/강동구민회관 1층 소회의실

구로문화원

제8회 구로문화원 수강생작품발표회/2013. 12. 9. 17:00/구로구민회 관 대강당

부산

동래문화원

동래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2014. 3. 1. 09:00~14:00/부산3·1독립운동기념탑, 동래고교, 만세거리 등

부산동구문화원

일신여학교 3·1절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2014. 3. 11./동구청대강당, 일신여학교

부산서구문화원

제12회 부산서구문화회 작품전/2013. 12. 2.~ 10./부산서구문화원
부산서구문화회 수강생 작품전/2013. 12. 12.~ 20./부산서구문화원

사하문화원

을숙도그리기, 글짓기, 사진공모 우수작품전시/2013. 12. 01.~ 31./낙동강문화관

인천

남동문화원

청소년 문화(영화)기행/2013. 12. 21./남양주 종합촬영소 외

대전

유성문화원

철화보청사기전/2013. 12./갤러리유성
정월대보름제/2014. 2. 14./유림공원
안산산성제/2014. 3. 1./안산동 산성

울산

남구문화원

국제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전통혼례식/2013. 11. 2. 11:00~/울산남구문화원 정원
울산남구문화원 문화학교발표회/2013. 11. 26. 11:00~/울산남구문화원 정원

경기

안양문화원

안양관내 마을제 7곳 제례의식/2013. 11. 2.~ 11. 9./안양관내

연천문화원

정월대보름행사/2014. 2./미정

강원

원주문화원

입춘첩 및 가훈씨주기/2014. 2. 4./원주시청 1층 로비

홍천문화원

문화사랑 페스티벌/2013. 11. 30.~ 12. 1./홍천문화원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2013. 12. 18.~ 20./일출예식장
신년인사회/2014. 1. 3./썰비치 그랜드볼룸

충북

충주문화원

제37회 김생서예대전/2013. 12. 7.~ 12./충주문화회관, 관아갤러리
2014 충주시민 해맞이 행사/2014. 1. 1./안림동 마즈막재 정상

충남

서산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한지공예 전시회/2013. 12. 4.~ 5./서산문화원
문예관람실

논산문화원

정월대보름맞이민속한마당/2014. 2. 9./논산천둔치

부여문화원

제15회 성홍산 해맞이 행사/2014. 1. 1. 6:30~8:00/부여군 임천면 성홍산

태안문화원

태안군 문화예술인 토론회/2013. 12. 13./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전북

군산문화원

제24회 갑오년 정월대보름 풍물한마당/2014. 2. 13./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광장

완주문화원

2013완주 역사문화 릴레이 포럼Ⅱ/2013. 11. 22./운주초등학교 강당

전남

영암문화원

제21회 영암군 세시풍속경연대회/2014. 2. 14. 10:00~14:00/영암실내체육관 및 광장

경북

경주문화원

2013년 해외문화교류/2013. 11. 28.~ 12. 2./중국 자오쥬시

구미문화원

금오대제 정월대보름축제/2014. 2. 14./금오산 금오제단, 낙동강체육공원

영주문화원

진지한 사색의 조형공간 회원전/2013. 12. 14.~ 18./영주시민회관 전시실

울릉문화원

희망! 2014년 울릉 해맞이 행사/2014. 1. 1./울릉읍 저동 촛대바위 일원

경남

남해문화원

제6회 경남실버가요제전/2013. 11. 15. 14:00~16:00/남해문화체육센터 다목적홀

육군39사단 8962부대 남해대대 및 전.의경 위문공연/2013. 12. 13./8962부대

남해문화원 제16기 문화학교 수료식/2013. 12. 10./남해문화체육센터

남해문화원 2013년 총회/2013. 1. 30./남해문화체육센터

남해문화원 2013년 총회/2013. 3. 5./남해문화체육센터

하동문화원

2013년 하동문화원 가족 송년행사/2013. 12. 20. 11:00~14:00/하동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제28회 정월대보름 민속축제/2014. 2. 14./하동송림 백사장

거창문화원

노인복합문화관 문화교실 종합발표회/2013. 12. 16./거창문화원 상설미홀

제22회 거창대동제/2014. 2. 14./거창읍 강변둔치

시도연합회 행사소식

서울시연합회

서울문화원장 송년연찬회/2013. 12. 26. 18:00/프레지던트호텔 18층 산호실

강원도연합회

2013 강원문화대축전/2013. 12. 27. 13:00~16:00/원주백운아트홀 (원주시청 옆)

강원도문화원연합회장 선거/2014. 1월말 (예정)/강원도문화원연합회 회의실

2014강원도문화원연합회 총회/2014. 2월말 (예정)/강원도문화원연합회 회의실

축제의 한류열풍을 기대하며

정강환 배재대 교수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축제의 계절이었다. 축제 관람객들은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을 쌓았지만 축제 준비 관계자의 목소리는 그리 밝지 못했다. 예년보다 예산 수립이 어려워 준비 기간에 시달린 빛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몇몇 축제는 새로운 활로를 찾는 전략을 세워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움했다.

세계축제협회(IFEA World)는 지난 2007년부터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축제를 심사해 ‘피너클 어워드’ (Pinnacle Award)를 수여하는데, 올해는 우리나라 축제들이 쓸쓸한 결과를 얻었다. 강원도 화천군은 미국의 보스턴, 프랑스의 니스와 함께 세계축제 도시로 지정됐다. 또한 금산인삼축제, 광주세계김치축제, 한성백제문화제, 서울등축제, 순창장류축제, 울산고래축제, 국제푸드&와인축제, 함평나비대축제 등 역대 최다인 11개 축제가 31개 분야의 상을 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축제의 국제화를 위한 숨은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국내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주최하는 진주시는 지난해 세계적인 겨울 축제인 캐나다 ‘오타와 윈터루드’ (ottawa winterlude)에 진주의 유등을 설치해 선풍을 일으켰다. 진주의 유등은 연일 캐나다의 방송과 신문문을 장식했고, 데이비드 존스턴 총독은 한국의 작은 도시인 진주에서 방문한 이창희 시장과 작지 않은 사건을 기념했다.

충남 서산문화원이 주관하는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역시 올해 겹경사를 맞이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한데다 지난 9월 피나클 어워드에서 ‘Best Event Promotional Photograph’를 수상하는 쾌거를 올린 것이다. 축제 전문가인 기이 라플람 캐나다 수도권개발위원회 부사장은 “역사성과 진정성에서 최고의 축제였다”는 서한을 보냈다.

이처럼 해외에서 열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축제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체계적으로 관리한 문화관광축제의 한류를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자체적인 활로를 모색하거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정책 마련이다. 성공적인 문화관광축제가 창조경제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은 해외의 여러 사례를 통해 검증됐다. 현 정부의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문화관광축제가 기여할 수 있으며, 축제와 관련된 현대산업의 활성화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높은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하고 끊임없이 세계인의 발길이 닿는 우리나라의 문화관광축제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세계적인 가수의 반열에 오른 싸이를 보며 필자는 오늘도 꿈꾼다. 머지않아 세계를 주름잡는 멋진 축제한류열풍이 불어 닥칠 것이라고. 🍀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다시 태어난

KTV 국민방송

KOREA TV

2014년 1월 1일부터 **KTV 한국정책방송**이 **KTV 국민방송**으로 채널명을 변경합니다.

시청자들에게 정부 정책과 공공정보·문화예술·다큐멘터리 등을
케이블과 위성방송, 인터넷(VOD)으로 전달하는 KTV 국민방송!

2014년 새해에도 품격높은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린방송이 되겠습니다.

KTV 대표 프로그램 소개

희망의 새시대(월~금, 오전 11시), 국민행복시대(월~금, 오후 5시)

국내외 시사현안과 문화 이슈를 짚어보는 데일리 종합뉴스

파워특강(월, 오후 4시 5분)

우리 시대 최고의 명사와 함께하는 특별한 강의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수, 오후 2시 30분)

실용적이고 유용한 정책정보 한마당

대한니우스의 그때 그 사람(금, 오후 4시 5분)

대한니우스를 통해 본 우리의 '새로운' 역사

국악콘서트 울림(토, 저녁 8시 20분)

TV에서 만나는 우리소리의 향연, 명품 국악공연 한마당



KTV YouTube



채널번호 안내

위성방송 : HD 161번, SD 520번

IPTV : 올레TV(43번), SK 브로드밴드(503번), LG U+(171번)

함께 꿈을 나누고
함께 꿈을 이루고

(전국은행연합회 발표기준)

사회공헌활동 2년 연속 1위

더 큰 나눔으로 고객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NH농협은행**